

第38回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李 正 春

국제표준자료번호(ISBN/ISSN)의  
活用度 提高方案 研究

中央大學校 新聞放送大學院

出版雜誌專攻

金 美 海

2001年 12月



국제표준자료번호(ISBN/ISSN)의  
活用度 提高方案 研究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1년 12월

中央大學校 新聞放送大學院  
出版雜誌專攻  
金 美 海



金美海의 碩士學位論文을 追認함

審査委員長 \_\_\_\_\_ (인)

審査 委員 \_\_\_\_\_ (인)

審査 委員 \_\_\_\_\_ (인)

中央大學校 新聞放送大學院

2001년 12월



## - 국문초록 -

### 국제표준자료번호(ISBN/ISSN)의 활용도 제고방안 연구

본 연구에서는 ISBN/ISSN의 실제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에 문헌번호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아직도 정착 단계에 머무른 채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한 원인을 번호자체의 구조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ISBN/ISSN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도 운영상의 개선과 온라인서비스의 확대, 도서정보 DB의 구축을 통해 찾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조사와 사례조사를 병행하였다.

연구문제로서 ISBN/ISSN의 국제적인 운영현황, 우리나라에서의 활용실태와 ISBN/ISSN의 활용을 저해하는 문제들을 조사하였고, 마지막으로 ISBN/ISSN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ISBN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단체로의 이관을 포함하여 표준번호 국가관리기구에 대한 재검토를 하여야 한다. 둘째, 오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가기호와 세트번호에 대하여 그 존재 여부를 포함하는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국립중앙도서관이 2002년에 시행할 e-CIP와 ISBN은 연관된 체제로 정비되어야 양 제도가 효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된다. 넷째, 인터넷을 통한 ISBN 정보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다섯째, ISBN을 주키로 하는 ISBN 통합 DB를 구축하여야 한다. 여섯째, ISSN 제도도 마찬가지로 번호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하고, 학술지와 일반잡지에 대한 별도의 번호체계 적용이 필요하다. 일곱 번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것인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이다. 그리고 이러한 방안들과 함께 한국문헌번호센터의 기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국제표준자료번호는 발전해 나갈 것이다.



# 목 차

제1장 서론 .....	1
1.1. 연구목적 .....	1
1.2. 연구문제 .....	4
1.3. 연구방법과 내용구성 .....	4
1.4. 선행연구 .....	5
제2장 국제표준자료번호의 도입현황 .....	8
2.1. 국제표준자료번호의 개념 .....	8
2.2. 국제표준자료번호의 목적 .....	10
2.3. 국제표준자료번호의 구조 .....	12
2.3.1. 국제표준도서번호의 구조 .....	12
2.3.2.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의 구조 .....	15
2.4. 우리나라의 국제표준자료번호제도 .....	16
2.4.1. 한국문헌번호의 현황 .....	16
2.4.2. 한국문헌번호의 구조 .....	20
2.5. 국제기구와의 관계 .....	22

**제3장 외국의 국제표준자료번호 운영 ..... 24**

3.1. 일본의 운영실태 ..... 24

    3.1.1. 일본도서코드 ..... 24

    3.1.2. 일본잡지코드 ..... 26

    3.1.3. 도서정보 DB 시스템 운영 ..... 28

3.2. 미국의 운영실태 ..... 29

    3.2.1. ISBN ..... 29

    3.2.2. ISSN ..... 32

    3.2.3. 도서정보 DB 시스템 운영 ..... 32

3.3. 영국의 운영실태 ..... 33

    3.3.1. SBN ..... 33

    3.3.2. ISSN ..... 35

    3.3.3. 도서정보 DB 시스템 운영 ..... 36

**제4장 국제표준자료번호의 활용과 문제점 ..... 38**

4.1. 도서관에서의 활용 ..... 38

4.2. 출판사에서의 활용 ..... 41

4.3. 서점 등 유통업체에서의 활용 ..... 42

4.4. 국제표준자료번호의 구조적 문제 ..... 44

    4.4.1. ISBN 표기율과 오용실태 ..... 44

        4.4.1.1. 제도에 대한 인식 ..... 49

        4.4.1.2. 부가기호의 적용 ..... 52

4.4.2. ISSN의 오용실태와 활용 .....	56
4.4.2.1. ISSN의 오용실태 .....	57
4.4.2.2. ISSN Compact의 활용 .....	58
<b>제5장 국제표준자료번호의 활용 제고 방안 .....</b>	<b>59</b>
5.1. 국제표준자료번호의 운영 활성화 .....	60
5.1.1. 관리기구의 이관 .....	60
5.1.2. 부가기호의 검토 .....	65
5.1.3. e-CIP와의 연계 .....	68
5.2. 관련정보의 온라인 서비스 확대 .....	72
5.3. ISBN 도서정보의 활용 .....	77
5.3.1. ISBN 통합 DB의 개념 .....	77
5.3.2. ISBN 통합 DB의 개발 방향 .....	79
5.3.3. 공동 레코드 편성을 위한 포맷 표준화안 .....	82
5.3.4. ISBN 통합 DB의 발전방안 .....	84
5.4. 디지털시대의 국제표준자료번호 .....	85
<b>제6장 결 론 .....</b>	<b>87</b>

## - 표 목차 -

<표2-1> 우리나라 ISBN 가입 발행자수 .....	18
<표2-2> ISBN 도서정보 구축 현황 .....	19
<표2-3> ISSN 연도별 가입현황 .....	20
<표4-1> 2000년도 교보문고 납품도서의 ISBN 표기율 .....	45
<표4-2> ISBN 오용조사내역 .....	47
<표4-3> 독자대상기호 .....	52
<표4-4> 발행형태기호 .....	52
<표4-5> 내용분류기호표 .....	54
<표5-1> 도서정보 온라인 접수 현황 .....	74
<표5-2> 발행자번호 온라인 접수 현황 .....	75

## - 그림 목차 -

[그림2-1] ISBN의 구조 .....	13
[그림2-2] 우리나라의 발행자번호체계 .....	14
[그림2-3] ISSN의 구조 .....	16
[그림2-4] 한국도서번호의 구조 .....	20
[그림2-5] 한국연속간행물번호의 구조 .....	21
[그림3-1] 공통잡지코드 체계 .....	27
[그림3-2] 신공통잡지코드 체계 .....	27
[그림5-1] e-CIP업무 흐름도 .....	71
[그림5-2] ISBN 통합 DB의 기본 개념도 .....	78
[그림5-3] 원시데이터의 흐름 .....	79
[그림5-4] ISBN 통합 DB의 개요 .....	80
[그림5-5] 위원회 및 개발사업단 구성도 .....	81
[그림5-6] 통합도서정보 자동화 목록 표준 포맷(Unifield MARC Record Format) 시안 .....	82

# 제1장 서론

## 1.1. 연구목적

우리나라 출판계는 지난 몇 년 동안 계속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신간도서의 발행량은 1997년 IMF 이후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분야별 발간도서의 비율도 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sup>1)</sup> 출판 불황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출판계를 중심으로 서점·유통업계와 도서관계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의식 속에서 현재 한국 출판계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가장 시급하게 선결되어야 할 것이 출판물 유통과정의 개선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출판산업의 정보화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관련업계 종사자라면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우리의 출판산업은 출판사의 크기에 따라, 또 서울이나 지방이나에 의해 양극화현상이 나타나고, 독자들의 요구도 다양화됨에 따라 출판물의 다품종·소량생산이 심화되면서 거래빈도는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출판물의 유통과정에 있어서 업무관리의 효율성은 해를 거듭할수록 떨어지고 있다.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출판사나 서점에서의 수·발주, 판매, 회계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막연한 추산에 의한 주먹구구식 경영이 이루어지게 된다. 게다가 독자들은 갈수록 신속한 정보의 습득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판예정도서목록(Forthcoming Books)은 물론이고 도서 유통에 있어서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종합도서목록(Books in Print)조차 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출판계의 정보화에 대한 요구는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절실할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부처를 비롯한 관련업계에서는 심

---

1) 『2001 한국출판연감』(대한출판문화협회, 2001)에 따르면 신간의 발간종수가 1998년 28,838종, 1999년 25,910종, 2000년 25,632종으로 나타나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분야별로는 종교, 사회과학, 순수과학, 예술, 문학, 참고서 등의 6개 분야가 계속 감소추세이며 만화는 지속적인 증가로 출판집중도가 가속화되고 있다.

몇 년 전부터의 숙원사업으로서 출판유통에 대한 합리화 방안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이어져 왔다.<sup>2)</sup>

그러나 그 동안의 모든 연구들이 서점 등 유통업계를 주 대상으로 하여 단일 유통업체 설립이라는 결론에 이르고 있음에도 눈에 보이는 결과물은 전무한 상태이다. 이는 출판유통정보화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표준화작업에 있어서 필수 키가 되는 식별번호에 대한 적합성과 유효성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결과로 보인다.

전세계에서 간행되는 출판물에 고유번호를 주어 식별화시키는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 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 이하 ISBN으로 표기함)와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 : International Standard Serial Number, 이하 ISSN으로 표기함)가 처음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1990년 8월이었다. 국제 ISBN 관리기구(International ISBN Agency)로부터 국립중앙도서관이 ISBN 국가기구로 지정되어 국가번호 “89”를 받아 1991년부터 발행자번호를 배정하고, 또 ISSN 국제센터로부터 ISSN 가용번호 5,000개를 받아 간행물에 번호를 부여하기 시작한 지 만 10년이 넘었다.

그러나 긴 시간이 흘렀음에도 ISBN이 실제 사용에 있어서 표기율 80%를 넘지 못하고, 크고 작은 오용율 또한 20%를 상회하고 있는 등<sup>3)</sup> 아직 정착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 원인을 내부적인 요소와 외부적 환경에서 찾을 수 있다. 출판물 유통과정의 중핵이라고 할 수 있는 서점의 전산관리시스템이 대형 서점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점에서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외부적 환경 요인이라면, 근본적으로는 ISBN 표기율의 문제라든가, 높은 오용사례를

---

2) 문화관광부에서는 출판유통과 관련하여 1989년에 『한국출판유통 현대화방안연구』, 1998년에 『출판유통정보화 추진방향』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또 이를 바탕으로 하여 2001년 9월에는 “출판유통현대화사업 연차시행계획(안)”을 마련하고 <출판유통 정보센터>가 설치되어 사업시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3)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헌번호센터에서는 1998년부터 연 2~4회에 걸쳐 ISBN오용조사를 하였다. 1998년 1차 조사에서 오용률은 30%였으며 최근의 조사(2001년 7월)에서는 18.4%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상세한 것은 4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가져 올 수밖에 없는 제도의 미비로 인해 ISBN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한 것이 내부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ISBN의 목적은 서적유통과 문헌정보유통의 효율화이다. 그러나 현재 서적유통의 효율화는 유통시스템에서 ISBN의 위치가 확고부동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ISBN을 기반으로 하는 유통시스템의 구축은 요원하기만 하다. 또 문헌정보유통의 효율화 역시 ISBN이 도서관계에서 다양하게 쓰일 수 있음에도 실질적으로는 극소수의 도서관에서, 극히 제한적이며 보조적인 수준으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실질적으로 발간자료에 ISBN을 부여하는 일차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출판사의 경우도 ISBN에 대한 인식이 낮음으로 인하여 대부분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에 대하여 ISBN/ISSN 번호체계 및 운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알아보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ISBN을 주 키로 하는 도서정보시스템의 구축(안)을 검토하고, ISBN/ISSN의 활성화를 위하여 ISBN 국가기구인 국립중앙도서관이 중심점이 되어 인터넷을 통한 출판사·유통업체·도서관 간의 통합정보시스템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국립중앙도서관에서 2002년 시행 예정으로 추진중인 e-CIP(Cataloging in publication data : 출판예정자료표준목록)<sup>4)</sup> 사업과 ISBN의 연계는 ISBN의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다.

ISBN/ISSN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의 분석과 발전방안에 대한 제시를 통해 현재 출판업체가 추진하고 있는 출판유통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기반작업은 물론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출판산업 정보화 추진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4) e-CIP의 e는 electronic으로 출판사로부터의 데이터 제출을 기존의 방법(우편이나 Fax 등)이 아닌 전자우편(인터넷, E-mail 등)을 통해서 받는 것이다.

## 1.2. 연구문제

이러한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1) 국제표준자료번호의 국제적인 운영현황은 어떠한가?
- (2) 우리나라에서의 국제표준자료번호 활용실태는 어떠한가?
- (3) 국제표준자료번호의 활용을 저해하는 문제들은 무엇인가?
- (4) 국제표준자료번호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표준자료번호의 활용실태를 이해하고 활성화할 도모할 수 있는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출판산업 현대화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 1.3. 연구방법과 내용구성

이러한 연구목적에 위한 기본자료는 문헌조사와 사례조사를 통해 입수하였다. 문헌조사의 경우 주로 출판유통정보화 방안과 관련한 연구문헌을 중심으로 조사하였으며, ISBN/ISSN 제도의 실제적인 분석과 대책에 있어서는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헌번호센터의 업무관련 서류들을 참조하였다.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에 수록된 정보들은 현황 파악에 인용하였다. 사례조사의 경우 국제표준자료번호(ISBN/ISSN)의 도입현황과 외국의 운영실태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활용사례 현황과 문제점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제도가 도입된 후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ISBN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현실적 원인을 ISBN의 구조 자체에 대한 검토를 통해 찾고자, 번호구성 체제에 대하여 근본적인 분석을 통한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ISBN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도서관과 유통업계, 출판사별로 알아보고, 국립중앙도

서관의 e-CIP 제도와의 연계를 통하여 활용방안을 높이고자 하였다. 유통업계에서의 늘어나는 유통 거래량과 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효율적인 출판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시 ISBN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ISBN 통합 DB 구축안을 제시하였으며 궁극적으로는 도서관·유통업계·출판사 삼자간의 통합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의 공유화를 이루고자 하였다.

#### 1.4. 선행연구

출판학에 대한 많은 학문적 연구성과들 속에서 출판유통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이어져 왔다. 낙후된 유통구조가 출판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어, 출판유통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과 대안 제시는 출판연구에 있어서 하나의 큰 줄기를 이루고 있다.

출판유통의 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된 것은 출판유통을 전담할 수 있는 대형유통센터를 설립하자는 것과, 통합된 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의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출판유통에 관한 연구의 효시로서 윤형두<sup>5)</sup>는 한국의 출판유통에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출판유통기구의 부재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해결방안으로 일본의 출판현황 및 유통실태에 관한 자료를 비교 분석하면서, 집중적인 생산과 분산적인 소비 사이에 가교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대형도매기구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정보화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출판유통체제 구축방안으로서 유통정보시스템을 최초로 제시한 것은 이두영<sup>6)</sup>의 연구이다. 그는 출판산업의 정보화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ISBN과 POS 시스템을 도입하는 표준도서정보체제로서, 통일된 코드에 의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출판유통거래제도가 EDI

5) 윤형두, 『한국과 일본의 도서유통에 관한 비교연구』,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1983

6) 이두영, 『출판유통정보시스템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신방대학원, 1989

(Electronic Data Interchange : 전자식문서교환)체제로 재편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두영 이후로도 출판유통기구 및 유통정보시스템에 관한 연구<sup>7)</sup>는 상당수 찾아볼 수 있으며, ISBN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ISBN을 출판정보시스템의 중심 키로 삼아 시스템 설계를 한 것으로는 이재원<sup>8)</sup>의 연구가 있다. 그는 ISBN을 완전 자동화된 도서 유통시스템의 중요한 요소로 보고 우리나라에서의 ISBN 활용사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 문제점을 제시함으로써 도서의 출판에서 독자에게 이르는 출판정보의 유통과정을 통합하여 출판정보의 최신성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출판유통의 정보화를 이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ISBN 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번호 자체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들에 대한 분석이 없고 ISBN과 밀접한 관계 속에 있는 CIP 제도를 연계시키지 못한 연구의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이제까지의 연구들을 보면 출판유통 효율화방안으로서 대형출판유통센터의 설립, 또는 출판유통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

- 
- 7) 맹준수, 『정보화사회에 따른 출판유통의 발전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1989  
이상호, 『출판유통현대화를 위한 EDI구축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1994  
임준현, 『한국 출판유통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 1994  
박성현, 『출판유통VAN의 구축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1995  
강경중, 『한국출판유통의 <일괄서비스시스템>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신방대학원, 1997  
김봉모, 『고객지향적 출판유통경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1997  
도영운, 『한국출판유통의 현대화를 위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1998  
성의현, 『출판산업의 유통구조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1998  
김미영, 『우리나라의 출판물 유통사례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1998  
김미지, 『한국과 일본의 출판유통에 관한 비교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1999  
강선영, 『한국출판산업의 정보화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1999
- 8) 이재원, 『출판물유통을 위한 ISBN정보시스템 설계에 관한 연구』, 한양대 교육대학원, 1998

를 상업적인 유통 측면에서만 바라보고 해결하고자 함으로써 출판유통시스템에 있어서 데이터 구축요소라든가, 기술규칙에 있어서의 표준화문제 등에 대한 연구를 간과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관련연구들은 ISBN 제도의 실행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전혀 다루고 있지 못하는 제한점을 가지게 되었다.

ISSN의 경우는 출판계나 도서관계 어느 쪽에서도 관련 연구논문은 물론이고 참고자료가 될 만한 것이 전무한 상태이다. 그런 가운데 한국문헌번호센터의 『한국문헌번호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국립중앙도서관, 1998년)는 비록 ISBN을 중심으로 하고는 있으나 유일하게 ISSN에 대한 정보화 동향이나 외국의 사례 등과 함께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담고 있는 연구서로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이 연구서 또한 ISSN 자체에 대한 분석적인 시도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 제2장 국제표준자료번호의 도입현황

### 2.1. 국제표준자료번호의 개념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에 이르는 시기는 도서관계와 출판계에 있어서 중대한 변화의 시기였다. 출판양의 증가와 컴퓨터의 발달은 전세계에서 출판되는 각종 출판물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간단히 식별·처리할 수 있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식별번호의 필요성을 대두케 하였다.<sup>9)</sup> 여기에 각종자료에 대해 각각의 식별번호들이 생기기 시작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전자출판물을 포함하여 단행본 출판물에는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신문이나 학술지 등의 연속간행물에는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ISBN은 1965년 영국 최대 서점 체인인 H.W. Smith & Son사에서 업무의 전산화를 하는 과정에서 생겨났다. 재고도서를 포함하여 출판물에 컴퓨터로 처리할 수 있는 고유번호를 부여하면 판매관리에 커다란 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모든 출판물에 적용하자는 제안을 영국출판협회(British Publishers Association)에 한 것이 발단이 되어, 1967년 ISBN의 전신인 SBN(Standard Book Number)의 완성을 보았다. 처음 런던의 Whitaker사에서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미국에서는 이듬해인 1968년 R.R. Bowker사에서 도입하였다. 이에 영국의 출판계에서는 국제간의 출판물 유통에 있어서도 이와 동일한 번호법이 시행된다면 유통과정을 효율화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여 영국을 중심으로 미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아일랜드, 덴마크 대표가 런던에 모여 SBN을 확장해서 세계의 모든 나라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국제표준화기구(ISO :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에 제의하게 된다. ISO에서는 제46기술분과위원회(TC46)에 의안을 부여하고 이를 심의하였다. 1972년 위원회에서는

---

9) 한국문헌번호센터, 『한국문헌번호편람 : ISBN/ISSN』, 4판, 국립중앙도서관, 2000, p.3.

ISBN이라고 이름지은 국제표준도서번호법을 규정하여 규격으로 제정하여 “ISO 2108-1972”를 공포한다. 이것이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ISBN의 시작인 것이다.<sup>10)</sup>

1972년 가입 첫째 10개국에서 1974년에는 22개의 주요국들이 사용하기 시작하여 시행 30년이 되는 2001년에는 전세계 161개 국가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여 539,446개 발행자가 ISBN을 사용하고 있다.<sup>11)</sup>

ISSN은 국제연속간행물데이터시스템(International Serial Data System : ISDS)에 의해서 시작되었는데, ISDS는 1967년 유네스코 총회의 결의에 따라 발족한 세계과학정보시스템(UNISIST) 계획과 관련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다. 초기의 목적은 과학기술 분야 학술잡지의 서지사항을 표준화하기 위하여 세계에서 생산되는 모든 과학잡지를 한 곳에 등록하는 것이었다. 그후 ISDS 파일에 수록될 연속간행물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잡지명에 대한 국제리스트의 작성, 간략 표기된 잡지명의 등록, 리스트에 등록된 잡지의 변경 또는 추가내용을 나타내는 보충판 리스트와 누적판의 생산 등이다.

1971년에 연속간행물의 지명을 식별하는 방안으로 ISSN 규격이 국제표준화 기구(ISO)에 의해 만들어지고 1972년에 유네스코와 프랑스정부가 공동으로 ISDS 국제센터를 파리에 설치하고 실제 활동을 시작하였다.<sup>12)</sup> 후에 명칭이 ISSN 국제센터로 변경되었다.

2000년 말로 전세계 81개국에서 등록된 데이터의 레코드 수는 988,962건이며 한국의 등록 레코드 수는 2,502건이다.<sup>13)</sup>

---

10)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헌번호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1998, p.8.

11) The International ISBN Agency, *Publishers' International ISBN Directory : 2001/2002*, 2001. p.VII.

12) 국립중앙도서관, 『ISDS 전문가 초청 강연회 자료집』, (1991. 12. 11.~14.), p.10.

13) <http://www.issn.org/stateng.html>

그밖의 국제표준자료번호로는 ISMN(International Standard Music Number)<sup>14)</sup>, ISRC (International Standard Recording Code)<sup>15)</sup>, ISWC(International Standard Work Code)<sup>16)</sup>, ISAN(International Standard Audiovisual Number)<sup>17)</sup>, ISRN(International Standard Report Number)<sup>18)</sup>, DOI(Digital Objects Identifier)<sup>19)</sup>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ISBN과 ISSN 외의 다른 표준자료번호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sup>20)</sup>

## 2.2. 국제표준자료번호의 목적

ISBN이 처음 설계되었을 당시의 목적은 유통되는 출판물의 식별을 보다 간편하고 고유한 기호로 표준화함으로써 거래업무를 효율화하자는 데 있었다. 그러나 ISBN이 본격적으로 조직화되고 실천단계에 들어서게 되자, 그것이 다만 거래업무를 차원만이 아닌 서지업무에도 지대한 효용이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ISBN의 목적은 두 가지 차원에서 고려되어 확대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효용이라는 측면에서도 도서거래업무만이 아닌 서지정보 유통이라는 문제로 확대되었다.

- 
- 14) 모든 인쇄된 음악출판물을 식별하는 번호로 1992년에 ISO 10957로 국제표준규격이 되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10여개국이 가입을 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 15) 국제적으로 사용 가능한 음악 및 비디오 기록물 식별코드로 번호부여대상은 물리적제품이 아닌 음악 또는 비디오기록물 자체이다.
  - 16) 음악작품이나 문학작품 등의 지적재산권을 개별적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코드를 표준화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저작권관리의 필수적인 도구가 된다.
  - 17) 시청각자료를 식별할 목적으로 고안된 국제표준시청각자료코드이다. ISAN은 하나의 시청각작품에 부여하는 코드이므로 유통형태나 생산형태와는 관계없이 특정자료는 항상 동일한 ISAN을 사용한다.
  - 18) 대부분 비정규출판물이거나 비매품인 연구보고서에 부여되는 번호이다.
  - 19) 인터넷상의 모든 디지털저작물을 식별하기 위한 번호체계이다. 아직 국제표준안은 마련되지 못했으나 현재 미국에서는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대한출판문화협회와 정보통신부가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 20) 한국문헌번호센터, 앞의 책, 2000, pp.71~78.

ISBN의 사용 목적은 다음과 같다.<sup>21)</sup>

1) 세계적으로 발간되는 모든 자료의 서명별 또는 표제별로 유일한 고유번호 (Unique and non-changeable)를 부여함으로써 언어나 문자의 서로 다름에 관계없이 지정하는 자료를 명백하게 식별하도록 한다.

2) 자료의 발행시 이 고유번호를 분명하게 표시함으로써 제작단계에서부터 유통단계(주문, 판매, 재고조사 등)에 이르는 모든 사무를 효율화한다.

3) 발행된 자료의 서지적인 정보를 고유번호와 결합시켜 정보유통(특정저자의 저서를 검색하거나 특정서명을 청구하는 등)에 정확성을 기한다. 뿐만 아니라 자료의 대여보관에도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표준번호는 컴퓨터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하며, ISBN은 정보의 모든 유통과정이 전산화를 전제로 만들어져야 한다.

ISBN을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sup>22)</sup>

1) ISBN 코드는 서지적이며 기술적인 복잡하고 긴 기록들을 대신함으로써 시간과 인력이 절감되고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

2) ISBN으로 판매용 도서목록 또는 편람을 편집하고 갱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입수 가능한 출판물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3) ISBN은 출판물을 주문하거나 판매하여 유통시킬 수 있는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법이다.

4) ISBN의 13자리 EAN 바코드 형식은 기계가 읽을 수 있음으로써 기계적인 처리가 가능하여 오류를 방지하고 유통과정을 효율화시킬 수 있다.

5) ISBN은 서점의 POS 시스템 운영에 필수적이다.

6) ISBN을 기초로 저작권을 관리할 수 있다.

7) ISBN으로 판매 데이터를 추적할 수 있다.

21) 현규섭, “국제표준도서번호(ISBN)제도의 기본방향 분석” 『도서관』 294(‘88. 2), p.8.

22) <http://www.isbn.spk-berlin.de/html/userman/usmz.htm>

- 8) 도서관에서는 ISBN을 통하여 서지정보를 복사하여 이용할 수 있다.
- 9) 영국에서는 상호대차제도 시행시 도서대여권이 ISBN에 의하여 부여된다.

ISSN의 목적은 처음부터 상업적으로 시작되었던 ISBN과는 달리 각 나라에서 발간되는 학술지에 대한 서지사항의 공통 DB 구축을 통하여 범세계적으로 이용하자는 것이었다. 나라마다의 서로 다른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상호간에 연속간행물 정보교환을 위해서는 표준화된 기호의 적용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간결하고 유일하며 명확한 식별 코드는 ISDS의 표준안과 일반규칙을 따름으로써 국제적인 시스템들과 호환성을 가진다.

이러한 ISSN의 목적 또한 ISBN과 마찬가지로 연속간행물 유통과 문헌정보 유통의 효율화라는 두 가지이다. 연속간행물유통의 효율화에 있어서는 경영기획 수립의 합리화를 가져 올 수 있으며 POS 시스템 도입으로 주문, 판매, 반품, 재고관리, 회계관리의 자동화를 이룰 수 있어 국제시장의 활성화를 가져온다. 문헌정보 유통에 있어서는 국제적인 범용 DB를 구축함으로써 도서관간의 상호대차, 종합목록 편성과 취급기관의 표준화에 기여할 수 있다.<sup>23)</sup>

## 2.3. 국제표준자료번호의 구조

### 2.3.1. 국제표준도서번호의 구조

국제표준도서번호(ISBN)은 10자리의 숫자로 구성되며 항상 ISBN이라는 문자를 앞세워 기술한다.

10자리 숫자는 4개의 군으로 나누어지는데 각 군은 하이픈(-)이나 공란으로 표시한다. 제1군 국별번호는 국별, 지역별 또는 언어별 군을 나타낸다. 제2군 발행자번호는 특정 발행자(또는 발행처)를, 제3군 서명식별번호는 발행자가 제작한 특정 서명(또는 표제명)이나 판을 나타낸다. 제4군은 한 자리의 체크기호

23) 한국문헌번호센터, 앞의 책, 2000, p.12.

(0~9, X 중 하나)로 ISBN의 정확성 여부를 자동으로 점검해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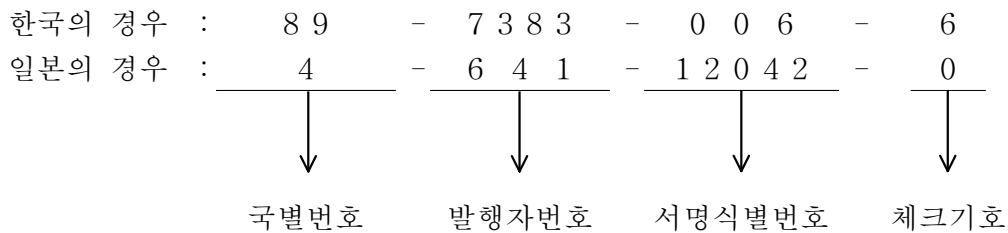
1) 국별번호는 ISBN 국제기구에 의해 배정되며 우리나라의 국별번호는 '89'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ISBN을 관장한다.

2) 발행자번호는 발행자의 도서발행 실적에 따라 2자리에서 6자리까지를 ISBN 국가기구인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배정한다.

3) 서명식별번호는 발행자가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서명이나 판의 일련번호순으로 부여한다.

4) ISBN의 착오여부를 탐지하는 체크기호의 계산은 한국공업규격 KSC 5862 및 국제표준규격 ISO 2108에 따라 계산을 하는데 '0'에서 '9'까지의 숫자와 'X' 중의 하나를 택한다. 체크기호가 틀리면 그 데이터는 사무처리가 번잡해질 뿐 아니라 발행자에게도 지장이 초래되므로 정확한 계산이 중요하다.<sup>24)</sup>

**[그림2-1] ISBN의 구조**



우리나라 발행자번호체계와 이에 따른 서명식별번호의 자릿수는 다음과 같다.<sup>25)</sup>

24) 한국문헌번호센터, 위의 책, 2000, pp.16~18.

25) 1990년에 국제ISBN기구로부터 받은 발행자번호는 자릿수의 등급에서 불균형이 나타났다. 1999년 4월 국제ISBN기구와 협의하여 발행자번호등급에 대한 재조정을 한 결과 2자리는 30개에서 25개, 3자리는 400개에서 300개로 줄고, 가장 배정빈도수가 많은 4자리가 1,500개에서 3,000개로 늘어나게 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발행자번호등급 재조정 에 관한 협의”공문, 1999. 4. 20.)

[그림2-2] 우리나라의 발행자번호체계

발행자번호	부여 가능한 발행자수	각발행자당 사용가능한 서명식별번호수
00-24	25	100 000
250-549	300	10 000
5500-8499	3 000	1 000
85000-94999	10 000	100
950000-999999	50 000	10

ISBN을 부여하는 대상자료에는 도서(정부간행물, 교과서, 학습참고서, 만화를 포함), 팜플렛(앞 뒤 표지를 제외하고 48쪽 미만인 자료), 복합매체 출판물(교재 포함), 점자자료, 교육용으로 제작된 필름·비디오테이프·오디오테이프·투명도·슬라이드 포함 기타 유사 매체자료, 녹음도서, 컴퓨터 소프트웨어(출판물도 함께), 출력 가능한 기계가독형 테이프·CD-ROM·온라인 출판물(단행본 성격) 등의 전자출판물, 마이크로형태 자료, 책자형태의 지도가 있다.<sup>26)</sup>

발행자번호를 배정받은 발행자는 모든 출판물(전자출판물 포함)에 도서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는데 중판의 경우는 매 판마다 새로운 번호를 부여하고, 중쇄(내용의 변화없이 재인쇄)의 경우는 처음 부여한 도서번호를 그대로 사용한다. 중판이란 책이름(서명)·내용·페이지·판형·발행자와 저자중 하나라도 변한 경우이다.

하나의 자료에 하나의 ISBN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동일한 책제목으로 2책 이상으로 간행되는 저작물은 그 전집명·총서명 및 다권본명에 대하여 하나의 서명식별번호를 부여하고, 그것을 구성하는 개별의 도서(예 : 1권, 2권 등)에 대해서도 각각의 서명식별번호를 부여하므로 두 개의 도서번호를 가지게 된다.

26) 한국문헌번호센터, 위의 책, 2000, p.13.

전집명·총서명·다권본명에 붙인 번호를 세트번호라고 하고 기술방법은 세트번호의 권수가 확정된 경우는 ‘(전00권)’이라 하고 권수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세트)’라고 기술한다.<sup>27)</sup>

ISBN의 표시는 1980년 국제상품코드관리협회(EAN International)와 국제 ISBN 관리기구가 ISBN과 유럽상품코드(EAN : European Article Number)의 겸용 방침을 협정한 후 ISBN이 기계가독형부호(Machine Readable Codes)인 바코드 형태로 변경되었다. 우리나라에서의 ISBN 코드는 OCR(Optical Character Recognition)-B 문자로 인쇄하고 EAN의 바코드형식으로 표시한다.

코드는 한 도서에 두 개의 지정된 위치에 표시한다. 출판물 유통·판매업무를 위해서는 뒷표지에 OCR-B와 바코드를 병기하여 인쇄하고, 도서관업무를 위해서는 판권지에 9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한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도서의 경우 바코드 없이 도서번호를 표시할 수 있다. 전집·총서 및 다권본으로 세트번호가 있는 경우 세트번호 위에 개별번호를 표시하고, 개별번호로 바코드를 제작한다.<sup>28)</sup>

### 2.3.2.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의 구조

ISSN은 항상 ISSN이라는 문자를 앞세우고 8개의 숫자로 구성된다. 8개의 숫자는 앞과 뒤의 4자리씩을 나누어 하이픈(-)으로 연결하며 앞의 숫자는 ISBN과는 달리 의미를 가진 숫자가 아닌 단순한 숫자 그룹이다. 뒷부분 4자리 중 첫째에서 세 번째까지의 자리는 앞부분 숫자그룹의 일련번호이며 끝자리는 체크기호이다.<sup>2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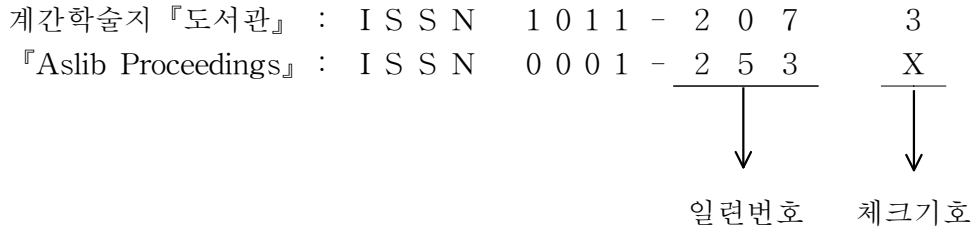
---

27) 한국문헌번호센터, 위의 책, 2000, pp.41~42.

28) 이것은 낱권 판매일 경우이며 전집 판매 시는 세트번호로 바코드를 인쇄해야 한다.

29) 한국문헌번호센터, 위의 책, 2000, p.93.

[그림2-3] ISSN의 구조



ISSN을 부여하는 대상자료는 정기간행물을 포함한 연속간행물, 간행물 또는 도서에 포함된 연속적인 부록, 연간서(보고서, 연감 등), 학술지, 회보·회의록·회의보고서, 신문, 단행본총서(Monographic Series)이다.<sup>30)</sup>

한 종의 연속간행물에는 하나의 ISSN이 배정된다. 이는 등록표제(간행물명)에 배정되는 것이므로 연속간행물의 표제가 바뀌면 새로운 ISSN이 배정되며 한번 사용된 ISSN은 어떠한 경우라도 다른 연속간행물에 사용할 수 없다.

코드의 표시는 ISSN과 EAN을 병기하여 사용하며 ISSN은 OCR B문자로, EAN은 바코드로 표시한다.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연속간행물은 표지 앞면 왼쪽 하단에 바코드 형식으로 표기하고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연속간행물(학술지, 정부간행물 등)은 표지 앞면 오른쪽 상단에 9포인트 이상의 활자 크기로 번호만 표시한다.

## 2.4. 우리나라의 국제표준자료번호제도

### 2.4.1. 한국문헌번호의 현황

우리나라에 처음 ISBN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진 것은 1970년대 중반이었다. 그러나 출판계와 도서관계에서는 별다른 시행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30) 한국문헌번호센터, 위의 책, 2000, p.97.

가 1980년대 들어 출판양이 급격하게 늘어나 세계10대 출판국에 들게됨에 따라, 도서의 유통 및 서지작업의 합리화·현대화·과학화라는 시대적인 요구에 맞춘 국제적인 유통제도로서의 ISBN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먼저 1987년에 개정된 도서관법에 국제표준자료번호제도를 명문화시킴으로써 도입에 앞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sup>31)</sup> 1990년 8월 국제 ISBN 기구에 가입하여 국가번호 '89'를 받고 9월에 한국문헌번호센터를 설치하여 ISBN을 한국도서번호로, ISSN을 한국연속간행물번호로 명명하고, 11월에는 '한국문헌번호운영심의회'<sup>32)</sup>를 구성하였다. 운영·협력·기술분과위원회로 구성된 위원회에서는 ISBN 제도 시행을 위한 사용자 매뉴얼인 《한국문헌번호편람》의 제정작업을 하였으며<sup>33)</sup> 이듬해인 1991년 9월 30일부터 출판사를 대상으로 발행자번호가 배정되기 시작하였다.<sup>34)</sup>

연도별 가입 발행자수는 다음과 같다.

- 
- 31) ISBN업무 소관처가 국립중앙도서관인 것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법률 6126호) 제 18조 ‘국제표준자료번호’ 조항에 의한 것이다. 현재 문화관광부가 입법 추진 중인 “출판산업진흥법” 제8조에는 ‘모든 출판물에 국제표준자료번호(ISBN/ISSN) 표시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32) ‘한국문헌번호운영심의회’는 2000년 4월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제23조에 명시된 설치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2001년 2월에 ‘한국문헌번호운영위원회’라는 명칭으로 국립중앙도서관규정 제285호로 새로 제정되었다.(『국립중앙도서관규정집』 2001)
- 33) 1991년 『한국문헌번호편람:도서번호(ISBN)편』으로 발간된 후, 제2판 이후는 ISSN도 포함되었으며 2000년 12월에 개정4판이 나왔다.
- 34) 당시 한국문헌번호운영심의회 현규섭위원에 의하면 우리나라 발행자번호로는 가장 큰 수가 되는 두자리 숫자의 처음 시작인 ‘00’을 받기 위한 출판사들의 경쟁이 대단했다고 한다. 결국 치열한 각축 끝에 동아출판사(지금의 두산미디어)에 ‘00’, 웅진출판 ‘01’, 세광음악출판사에 ‘03’이 배정되었다.

<표2-1> 우리나라 ISBN 가입 발행자수

연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10
계	751	527	586	732	535	751	792	860	1,355	1,316	1,146
누계	751	1,278	1,864	2,596	3,131	3,882	4,674	5,534	6,889	8,205	9,351

(출처 :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헌번호센터 업무현황, 2001. 11)

\* 발행자수에는 ISBN 발행자번호를 추가로 받아 2개 이상인 경우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 2000년 말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출판사수는 1만 6,059개이나 『2001 한국출판연감』에 따르면 그 중 10.7%인 1,726개 사 만이 2000년에 1종 이상을 발간한 실적출판사이다.

\*\*\* 1990년대 후반기 들어 발행자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IMF 등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출판사가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과 인력으로 창업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ISBN 발행자번호를 배정 받은 발행자들은 자사가 발행할 도서의 ISBN을 만들어 번호와 함께 서지사항을 기재한 <도서번호통보서>를 한국문헌번호센터로 보내도록 되어있다. 이 통보서는 책에 ISBN을 인쇄하기 일주일 전에 센터에 보내야 하고 센터의 담당자는 이를 당일로 도서정보 DB에 데이터로 입력한다. 입력하는 과정에서 걸러진 잘못된 ISBN은 바로 전화 연락으로 수정케 하여 ISBN의 오용을 사전에 막을 수 있으며, 또한 이 데이터들을 공중정보통신망이나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국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아직 발간되지 않은 자료, 즉 미간행물에 대한 출판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센터에서는 1993년부터 <도서번호통보서>를 입력하여 ISBN 도서정보 DB로 구축하고 있는데 연도별 부여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2-2> ISBN 도서정보 구축 현황

연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10
계	10,781	13,860	20,473	28,127	28,046	31,351	33,042	26,489	28,766
누계	10,781	24,641	45,114	73,241	101,287	132,638	165,680	192,169	220,935

(출처 :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헌번호센터 업무현황, 2001. 11)

\* 데이터 중에는 만화와 학습참고서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기출판물 데이터를 소급하여 보내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총출판양에 대한 ISBN 표시율을 계산해 내기는 어렵다. 출판물의 ISBN 표시율은 <표4-1>에서 볼 수 있다.

\*\* ISBN 세트번호도 같이 입력되므로 실제 자료의 종 수는 적어진다.

ISSN은 1990년 7월 한국문헌번호센터가 설치된 이후 1991년 8월 ISSN 국제센터(ISSN International Center)에 정식으로 가입하여 ISSN 가용번호 5,000개를 수령하였으며 1992년 5월에는 학술잡지에, 그리고 9월에는 일반잡지에 대한 ISSN 배정을 시작하였다. 1993년에 업무매뉴얼인 《국제연속간행물데이터시스템편람-ISDS Manual》을 발간하고 1995년부터 ISSN 데이터관리 시스템으로 ISSN 간행물정보를 DB로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간행물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ISSN 배정요구로 인하여 1999년에는 가용번호 2,000개를 추가로 받아 현재 배정하였거나 할 수 있는 번호는 7,000개에 이른다.<sup>35)</sup>

ISSN의 연도별 가입현황은 다음과 같다.

35) ISSN국제센터로부터 처음 받은 5,000개의 가용번호는 앞자리가 1225에서 1229까지였다. 학술지와 일반잡지로 구분하여 1225, 1226, 1229로 시작하는 3,000개는 학술지에 배정하고 1227, 1228의 2,000개는 일반잡지에 배정하였다. 뒤에 추가로 받은 2,000개의 가용번호 역시 앞자리 1598은 학술지, 1599는 일반잡지로 구분하여 배정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ISSN 가용번호 신규배정 요청”공문, 1999. 12)

<표2-3> ISSN 연도별 가입현황

연도	이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10
계	463	842	338	585	337	505	427	608	781	776	594
누계	463	1,305	1,643	2,228	2,565	3,070	3,497	4,105	4,886	5,662	6,256

(출처 :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헌번호센터 업무현황, 2001. 11)

\* 463종은 우리나라가 ISSN에 정식으로 가입하기 전인 1991년까지 국제센터로부터 직접 번호를 배정받은 간행물로 전부 학술지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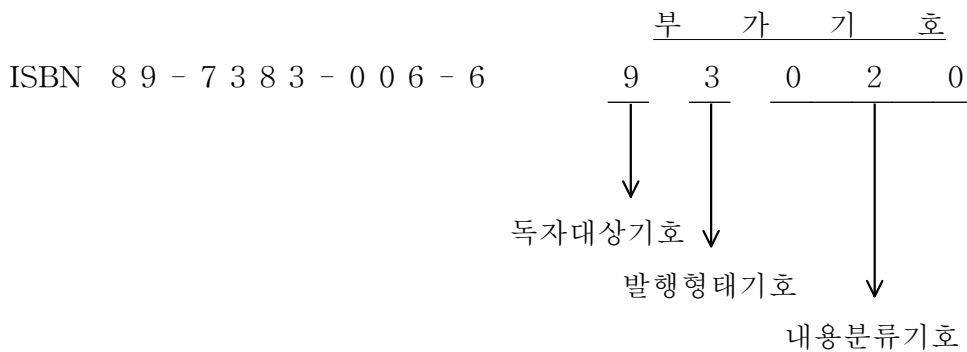
\*\* 1998년 이후 급격한 증가는 편의점에서의 POS 시스템 도입에 따른 결과로 주간지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2.4.2. 한국문헌번호의 구조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한국문헌번호에는 한국도서번호와 한국연속간행물번호가 있다.

한국도서번호는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10자리에 5자리의 부가기호를 덧붙여서 만든다.<sup>36)</sup>

[그림2-4] 한국도서번호의 구조



36) 한국문헌번호센터, 위의 책, 2000, p.15.



## 2.5. 국제기구와의 관계

1972년 독일 베를린 국립도서관에 설치된 국제 ISBN 기구(International ISBN Agency)의 주요한 기능은 1) ISBN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 2) 국가번호의 배정, 3) 국가관리기구의 설치 권고 및 지도, 4) 발행자번호 배정에 대한 국가 ISBN 관리기구와의 조연, 5) ISBN 리스트 배포, 6) 발행자편람(PIID) 제공, 6) 무효·이중번호 통고 등이다.<sup>40)</sup>

국제기구에서는 매년 1년간 ISBN에 가입한 발행자의 서지정보를 국가기구로부터 받아서 이를 PIID(Publishers' ISBN International Directory) 책자와 CD-ROM으로 제작하여 회원국에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매년 10월중에 ISBN 센터장회의(Int'l ISBN Agency Advisory Panel Meeting)<sup>41)</sup>가 열려 본부의 사업보고와 회원국의 활동보고 및 현안문제에 대해 토의를 한다. 제29차 ISBN 센터장회의는 2001년 10월 15~16일 룩셈부르크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의 주요의제로는 1) ISBN 시스템의 용량 확장에 대한 전망, 2) 전자출판물의 번호배정 발전과 전망, 3) 저자 발행자의 고유번호 배정 문제, 4) ISBN 이사건의 변경, 5) ISTWC(International Standard Textual Work Code), 6) 훈련, 출판물, 공공관계, 웹사이트에 관한 것이다.<sup>42)</sup>

1986년에 초판이 발간된 《ISBN User Manual》은 2001년까지 제4판이 나왔다.<sup>43)</sup> 제4판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전자출판물(e-book)에 대한 ISBN 부여가 수록되었으며 기타 국제표준자료번호인 ISMN, ISRC, ISWC, ISAN, ISRN, DOI, URN의 제정과정과 실태를 소개하고 있다.

국제 ISSN 센터는 프랑스 파리에 위치하며 국가관리기구를 관장한다. 국제

---

40) 한국문헌번호센터, 위의 책, 2000. p.91.

41) 우리나라에서는 1993년의 제21차(헝가리 부다페스트), 제23차(그리스 아테네)와 제27차(영국 런던) 센터장회의에 실무자가 참석하였다.

42) <http://www.isbn.spk-berlin.de/html/panel29.htm>

43) <http://www.isbn.spk-berlin.de/html/userman/usmz.htm>

센터의 기능은 1) 국가센터 설치의 권장과 ISDS 규정에 따른 운영, 2) 기계가독형 ISDS 파일의 편집과 관리를 통해 파일의 정확성, 일관성 유지와 지속적인 최신성 확보, 3) 국가센터와 이용자에게 ISDS 파일 보급(CD-ROM, Internet), 4) 네트워크활동을 조정하고 국가센터와 협력 하에 ISDS 관련 정책 및 절차 운영, 5) 국제기구와의 협력 유지, 6) 미가입국 및 국제기구간행 연속간행물 표제 등록 및 ISSN 배정, 7) 연속간행물 지명 약기 리스트 생산 등이다.<sup>44)</sup>

국제센터는 회원국으로부터 수시로 신규 가입 간행물에 대한 서지정보 데이터를 받아 연4회 업데이트시킨 ISSN Compact(CD-ROM)를 제작·배포하고 있다. Web 상으로 ISSN 등록을 검색하는 ISSN Online도 제공하고 있으며 ISSN Register에서는 등록 데이터의 국별, 언어별, 간행상태 및 형태별 통계수치를 볼 수 있다.<sup>45)</sup>

격년으로 ISSN 총회(ISSN General Assembly)가 열리고, ISSN 센터장회의(ISSN Director's Meeting)가 매년 10월에, ISSN 이사회가 2년에 3번 열린다.<sup>46)</sup> 국제센터의 운영은 프랑스 정부, 유네스코, 각 회원국의 회비 등으로 재원이 마련되며 각국의 연회비는 국가별 GNP와 국제센터 DB에 등록된 레코드 수량 등에 의해 결정된다.<sup>47)</sup>

ISSN 국제센터에 등록하는 데이터의 기본지침은 ISDS(International Serial Data System) 운용지침에 의하며, 2001년도 9월에 개최된 ISSN 센터장회의<sup>48)</sup>의 주요 안건으로 《ISDS Manual》의 개정작업이 올라가 있다.

44) 김용근, “연속간행물시스템 개발과 ISDS 현황”, 『ISDS전문가 초청강연회』 자료집, 국립중앙도서관, 1991, p.10.

45) <http://www.issn.org/stateng.html>

46)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에 열린 제20차 ISSN센터장회의(프랑스 파리)에 참석했다.

47) 1992년 4,682FF(프랑스프랑), 1993년 4,522FF이었던 연회비가 1994년에 20,660FF로 급증하였으며 1999년 31,714FF, 2000년 32,442FF까지 올라갔다. 1997년 IMF이후 환율이 올라감에 따라 연회비는 국가기구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2001년도 연회비는 36,542FF(US\$5,073)이다.

(ISSN국제센터, “ISSN연회비 Invoice”, 2001. 1. 8)

48) 제26차 센터장회의는 2001년 9월 12~14일까지 스위스의 본에서 열렸다.

## 제3장 외국의 국제표준자료번호 운영

### 3.1. 일본의 운영실태

#### 3.1.1. 일본도서코드

일본은 1970년부터 독자적으로 서적코드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출판계의 국제교류가 증진되고, 도서관계로부터의 요청과 함께 1976년 국제출판협회(IPA)에서 일본이 ISBN을 적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자, ISBN 도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시작하였다. 일본서적출판협회는 출판개발특별위원회를 조직하여 서적코드를 ISBN으로 대체하는 문제를 논의하였다. 관련기관 대표로 구성된 출판자료정보문제정책위원회에서는 ISBN의 사용을 결정하고 기초적인 연구와 함께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다.<sup>49)</sup> 1980년 10월에 일본도서코드 관리위원회를 발족시켜서 종전에 사용하던 서적코드를 폐지하고 ISBN에 서적코드를 부가한 일본도서코드의 사용을 결정함에 따라, 이를 1981년에 출판된 신간부터 표시하기 시작하였다.

2001년 3월말로 13,587개 출판사가 발행자번호를 배정받았으며 2004년부터는 교과서와 보충교재들에도 ISBN을 부여할 계획으로 있다.<sup>50)</sup>

일본도서코드는 ISBN 10자리와 앞에 'C'를 붙인 분류코드, 일본화폐 단위 '¥'과 'E' 사이에 숫자를 넣은 가격코드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ISBN 10자리는 국별기호가 1자리이므로 출판자(발행자)번호는 2~7자리까지 쓸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서명기호는 6~1자리까지가 배정된다.<sup>51)</sup>

분류코드는 발행형태와 독자대상, 도서주제의 세 가지 항목을 각각의 기호표

49) 현규섭, 앞의 논문, 1988, p.22.

50) <http://www.isbn.spk-berlin.de/html/progress/2001/japan.htm>

51) 日本圖書コード管理センター, 『日本圖書コード書籍JANコード實施の手引き』, 1998, pp.10, 14~16.

에서 해당되는 것을 출판사가 골라 조합시키도록 되어 있으며 코드의 앞자리에 'C'를 덧붙여 분류코드임을 식별하며 4자리의 숫자가 온다.

4자리의 첫 번째 자리 수는 판매대상에 관한 출판사의 의지를 표시한다. '1'은 교양, '2'는 실용, '3'은 전문, '5'는 부인, '6'은 소학생·중학생용 학습참고서, '7'은 고교생 학습참고서, '8'은 아동이다. 잡지로 취급되면서 일본도서코드가 붙어있는 것은 '9'이고 1~8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일반이라 하며 '0'으로 한다<sup>52)</sup>. 두 번째 숫자는 발행형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1'은 문고, '2'는 신서, '3'은 전집·총서, '4'는 무크지 등, '5'는 事·辭典, '6'은 도감, '7'은 그림책, '8'은 자성매체 등, '9'는 코믹류에 붙인다. '0'은 단행본으로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에 사용한다.<sup>53)</sup> 3~4행은 내용코드로 '00'~'99' 까지 100구분이 된 분류표에서 내용주제에 따른 분류를 하며 전집·총서의 경우는 각각의 권별로 분류한다. 이것으로 서지적인 면을 가미하면서 영업적 측면에서의 서점 배가 상 적 절한 위치선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sup>54)</sup>

가격코드는 '¥'을 앞세우고 끝에 'E'를 붙인다. 그사이에 5자리를 사용하여 소비세를 포함하지 않은 본체가격을 적는다.

이들 분류코드와 가격코드는 서점에서 판매되지 않는 책에는 표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일본도서코드는 기본적으로 책의 표지 4면 좌측상단과 보충스립(注文短冊), 그리고 판권면에 각각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품의 외측에는 OCR-B 폰트와 바코드(서적JAN코드)를 병기한다. 초기에는 이것을 출판사의 재량에 맡겨왔으나 출판유통환경과 POS 도입 등 이용여건의 변화에 따라 모든 출판물에 표시하게 되었다. 이것은 서점 이외의 장소에서도 책이 팔리는 등 판매장소의 복합화 현상이 보편화되면서 일상용품에 보급된 JAN코드를 병기할 필요성이

52) 한국문헌번호와 비슷한 내용이나 다소 차이가 있으며 번호체계가 다르다.

53) 한국문헌번호와 비슷하지만 4: 무크지와 9: 코믹류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번호 체계이다.

54) 내용코드는 <일본십진분류법(NDC)>을 전거로 하여 해당분야의 대표적인 요목을 뽑아 일본도서코드용으로 만든 것이다.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1999년 말로 일본도서코드와 서적 JAN코드의 표시율은 문고·신서의 경우 거의 100%에 이르며 그외의 서적류들은 일본도서코드는 100%에 이르나 JAN 바코드는 약 91%이다.<sup>55)</sup>

### 3.1.2. 일본잡지코드

일본의 ISSN은 국회도서관에서 관리하고 있다. ISSN 국가기구의 기준은 자국에서 간행되는 모든 새로운 연속간행물을 입수할 수 있어야 하며 납본을 통해서 또는 국가서지와 관련하여 혹은 저작권기관으로서 대규모의 연속간행물을 소장하고 있어야 한다.<sup>56)</sup> 따라서 1973년부터 ISSN 등록을 국회도서관이 맡음으로써 우리나라와는 달리 ISBN과 ISSN의 소관부처가 나뉘어지게 되었다. 현재 2명의 전담직원이 간행물의 등록과 DB 구축, 국제센타로의 데이터 전송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sup>57)</sup>

정기간행물에 대한 코드시스템은 ISSN과 공통잡지코드라는 일본 고유의 독자적인 시스템이 병행 활용되고 있는데, ISSN은 서지정보관리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고 공통잡지코드는 유통현장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다.

공통잡지코드를 관리하는 공통잡지코드관리센터는 1987년에 일본잡지협회·日本取次(유통기구)協會·일본서점상업조합연합회의 세 단체에 의해 설립되었다. 당센터는 (재)유통시스템개발센터(유통코드센터, DCC)와 업무를 협조하고 있으며 등록창구업무를 東京出版販賣(現ト-ハン, 東販)에 위탁하고 있다.<sup>58)</sup> 공통잡지코드는 1955년 출판업계 최초로 만들어진 상품코드로 東販이 잡지배본업무를 전자계산기로 처리하기 위해 부착하기 시작하였다. 1987년 2월부터 프라

55) 出版年鑑編輯部, 『出版年鑑 2000』, 出版ニュース社, 2000, p.1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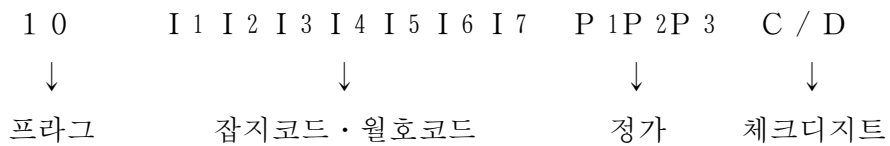
56) 한국문헌번호센터, 『국제연속간행물 데이터시스템편람 : ISDS Manual』, 국립중앙도서관, 1993, p.13.

57) 國立國會圖書館, 『國立國會圖書館のしごと』, 日外アソシエーツ株式會社, 1997, pp.51~52.

58) 出版年鑑編輯部, 앞의 책, 2001, p.166.

그 491로 시작하는 잡지의 JAN 코드 체계가 채용되었지만 당시에는 OCR 표시가 주였으며 바코드 표시는 출판사 자유였다. 1991년 12월부터 잡지가격의 상승에 따라 정가코드가 2행에서 3행으로 늘어나면서 T10형으로 변경되어 OCR과 바코드의 병기 표시가 사실상 의무가 되었다.<sup>59)</sup> 1997년 4월부터 소비세율 변경에 따라 T10형 코드를 T11형으로 변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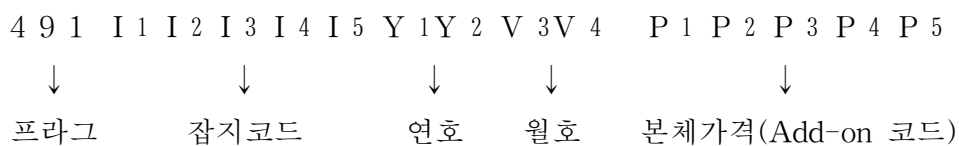
[그림3-1] 공통잡지코드 체계



T10형 코드는 2005년부터 미국에서 사용하기로 되어 있으나, DCC에서는 소비세율의 변경에도 적용할 수 있고, 유통단계에서도 처리가 쉽고 국제적으로 정합성을 갖는 신코드 체계의 검토를 시작하였다.

1996년에 DCC내에 발족한 출판바코드연구위원회에서는 이제까지 나타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T10형 코드를 검토한 결과, 2000년 10월에 새로운 코드 체계로 <Add-on 코드체계>를 확정 발표하였다. 신공통잡지코드 체계는 다음과 같다.

[그림3-2] 신공통잡지코드 체계



59) 流通コードセンター, 『出版バーコードの課題と展望』, 1996年 5月, pp.15~18.

코드의 표시는 잡지 뒷표지에 1)잡지코드, 2)공통잡지코드를 OCR 문자로 표시한 T코드, 3) 상기 두 개의 잡지코드에 JAN 바코드 표시를 한다.<sup>60)</sup>

ISSN의 표시는 국제센터의 규격대로 표지 앞면 우측 상단에 한다.

### 3.1.3. 도서정보 DB 시스템 운영

일본 출판업계에는 서적 마스터 파일에 속하는 도서정보 DB가 몇 가지 있다. 각 유통중개회사들이 유통업무용 상품 마스터 파일을 만들어 자사 업무처리에 활용하는 한편 서점이나 도서관의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다. (주)東販은 TONETS라는 DB 구축 시스템을 사용하며, 도서관용으로 작성되는 (주)도서관유통센터(TRC)의 TRC Marc로 이 서적 마스터를 보완하고 있다. 이러한 체제는 日販 등 다른 유통회사도 동일하다. 이들이 나름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고는 있지만 제각기 다른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호환성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일원화된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여망을 배경으로 日本書籍出版協會(書協)<sup>61)</sup>는 그동안 인쇄매체로 발행해오던 일본의 Books in Print인 《일본서적총목록》을 바탕으로 하여 도서서지 데이터베이스 《Books》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書協의 자료에 의하면 1999년 말까지의 유통중인 도서 57만 5천 점을 기반으로 하여 각 출판사로부터 출판 3주전 등록을 원칙으로 한 간행예정 도서정보를 출판 VAN이나 E-mail, 또는 플로피디스크 형태 등 전자매체를 통해 제공하기로 합의한 출판사가 646개 사에 이르렀다고 한다. 검색항목은 키워드, 저자명, 출판사, 발행년, 분류(일본도서코드에 의함), ISBN으로 되어 있다.

또 書協은 《Books》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출판사의 인터넷 환경을 확충하여 전자 데이터에 의한 정보수집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출판사에 홈페이지 만들어 주기 사업을 실시하여 홈페이지 개설비용과 1년간의 운영비를 부담하였다.<sup>62)</sup>

60) 松平直壽, 『コードが変える出版流通』, 日本エディターズスクール出版部, 1995, p.77.

61) <http://www.books.or.jp>

62) 2000년 4월로 書協 회원사 중에서 약 330개 사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日本書籍出版協會の書籍検索ホームジ-ペ 안내 팜플렛)

《Books》에서는 검색한 도서의 상세화면에서 해당 출판사 홈페이지와 《Books Link》를 통해 바로 연결된다. 여기에서는 내용소개·초록·목차·표지화면 등을 볼 수 있다. 2000년 4월로 《Books Link》로 연결된 출판사는 142개 사, 약 100,000책이다.

書協은 이러한 전자 데이터에 의한 DB구축에 대해 1) 망라성의 실현, 2) 신뢰성 높은 DB 구축, 3) DB작성 비용 절감효과를 얻고 있다.<sup>63)</sup>

## 3.2. 미국의 운영실태

### 3.2.1. ISBN

미국이 ISBN을 도입한 것은 1968년으로 출판시장을 영국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국과 거의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 미국은 단독 국가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등 10개 영어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나라들과 '0'과 '1'의 국가코드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이들 나라들은 각각 국가 ISBN 기구를 운영하면서 그나라 출판사수를 감안한 적당한 양의 발행자번호를 할당받아 자국의 출판사들에게 발행자번호를 부여한다.<sup>64)</sup>

미국의 ISBN 국가센터는 R.R. Bowker<sup>65)</sup>사로 단순히 발행자기호의 부여 등 코드관리업무에 주력하고 있으며 출판산업유통에 필요한 표준을 정하고 관리하는 일은 BISG(Book Industry Study Group)과 그 산하의 BISAC(Book Industry Systems Advisory Committee)의 책임으로 되어 있다. BISAC는 출판산업의 시스템표준을 개발하고 코드시스템의 올바른 사용지도, 통신 프로토콜 제정, POS 운영지침 등 유통정보화를 추진시키기 위해 설립된 기구이다.

출판물의 상품코드 심벌의 표준을 맡고 있는 기구는 1984년에 구성된 기계판

63) 국립중앙도서관, 앞의 책, 1998, pp.195~197.

64) 국립중앙도서관, 위의 책, 1998, p.118.

65) [http://www.bowker.com/bowkerweb/isbn\\_san/isbn\\_san.htm](http://www.bowker.com/bowkerweb/isbn_san/isbn_san.htm)

독기호 분과위원회(The Machine-Readable Coding Subcommittee)이다. 이 분과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포켓용 문고판발행 출판사들은 UPC(Universal Product Code)의 특수변형체를 표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바코드는 슈퍼마켓에서 출판사명과 가격을 식별하는 데 사용하거나 유통업자가 출판사, 가격, 서명을 추적하는 데 활용되었다. 대중시장용 페이퍼백의 경우 ISBN은 자동화설비를 갖춘 소매점들을 위해 기계판독이 가능한 OCR-A폰트로 인쇄하여 사용함으로써 사실상 유통현장에서는 ISBN과 UPC 두가지 코드와 심벌을 함께 표시하고 있다.

미국의 출판유통 시스템은 책의 형태와 성격에 따라 각각 다른 채널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 책의 형태에 따라 유통 채널이 다르고 각 유통 채널별로 판매점에 설치된 자동판독 시스템(POS) 또한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미국 출판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상품코드체계 및 그 심벌이 가지는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출판형태별 유통 시스템을 먼저 이해하여야 한다. 미국에서는 도서의 형태를 1) 포켓용 문고판, 2) 일반 경장본, 3) 정장본으로 나누고 있다. 포켓용 문고판은 슈퍼마켓이나 잡화점에서 일반소비재처럼 취급되거나 신문 가판대에서 주로 취급되고 있다. 일반서점에서는 일반경장본과 정장본 만을 판매할 뿐 잡지나 신문, 포켓판 도서는 취급하지 않는다. 다만 90년대 들어 반즈앤노블스나 Border 등의 대형서점 체인이 확산되면서 이들을 취급하기 시작했다.

일반 경장본이나 정장본에는 가격표시점 UPC를 표시하지 않고 Bookland EAN과 부가기호를 사용한다. 미국과 캐나다의 UPC 체계는 EAN 코드 앞에 '00'에서 '09'까지의 프리픽스를 삽입하여 양립할 수 있게 절충함으로써 UPC와 EAN 체계가 전세계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국제적인 하나의 상품코드로 발전하였다.

미국에서는 ISBN과 함께 부가기호를 사용하는데 부가기호는 출판사의 의지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교적 다양한 형태의 코드체계를 마련하였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가기호의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다.<sup>66)</sup>

### 1) 가격기호

5자리의 부가기호의 첫 번째 자리는 화폐단위를 표시하고 뒤에 4자리의 가격을 표시하는 숫자로 구성된다. '5'는 미국 달러, '6'은 캐나다 달러, '0'과 '1'은 영국의 파운드화 '3'은 호주 달러, '4'는 뉴질랜드 화폐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구두점 없이 사용되므로 10달러 이하의 가격은 앞에 '0'을 사용하여 자릿수를 맞추고 있다. 따라서 100달러 이상인 경우 가격표시를 모두 '9999'로 표시하므로 그런 경우 책의 실제가격은 판매시점이나 판독시점에서 수작업으로 입력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예)

US\$7.50 = 50750      US\$19.00 = 51900      US\$110.00 = 59999

이 가격은 미국에서는 재판매가격 유지체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므로 권장 가격이며, 현재 부가기호를 이용하여 가격표시를 하는 출판물은 대량시장용 포켓용 문고판으로 한정되어 있다.

### 2) 부가기호의 선택적 사용

부가기호를 출판사의 내부업무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90000'과 '99999' 사이의 모든 숫자를 출판사의 필요에 따라 임의로 선택,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내부적으로 사용할 용도가 없는 출판사는 '90000'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출판사가 표지나 자켓을 인쇄하기 전에 그 출판물을 어떤 채널을 통해 판매할 것인가를 결정한 뒤 그 시장에서 요구하는 심벌을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출판물의 유통 채널을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Bookland EAN을 표시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또 포켓용 문고로 유통업자를 통해 반품이 가능한 책인 경우 5자리의 부가기호를 가진 가격표시 UPC 심벌을 하여야 하며

---

66) 국립중앙도서관, 위의 책, 1998, pp.127~130.

ISBN을 그 바코드 심벌의 위(또는 밑)에 하도록 하고 있다.

### 3.2.2. ISSN

ISSN은 미국의회도서관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출판물 유통과는 관계없이 간행물에 번호배정과 국제센터에의 데이터전송 등의 기본적인 업무에 주력하고 있다.

BISG는 정기간행물 분야에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BISAC와는 별도로기구로 산하에 SISAG(Serial Industry Systems Advisory Committee)를 출판인, 잡지 공급대행사, 도서관, 국내외 서지정보 DB 제공업자들을 중심으로 설립하였다. SISAC의 목표는 정기간행물의 유통정보화를 촉진시키고 장표의 표준화, 자동화 시스템 개발을 도모하는 데 두고 있다.

### 3.2.3. 도서정보 DB 시스템 운영

R.R. Bowker사에서는 《Bowker Power》라는 데이터 입수, 확인 및 전달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시작하고 있다.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될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인 《Books in Print》는 다른 업계의 데이터베이스와 직접적으로 통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기록도 조사하여 수정한다. 《Books in Print》는 하루 24시간동안 운영되며 새로운 데이터를 전화선처럼 빨리 송수신할 수 있다. EDI를 통해서 출판사들은 서적관련 정보를 내려받을 수 있다. 전자전송이 불가능한 출판사를 위해서 Bowker사는 특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카탈로그를 만들고 재고 데이터를 저장하고 《Books in Print》와 인터페이스할 수 있도록 했다. 《Books in Print》의 인쇄물, 마이크로 피쉬, CD-ROM 이외에 자기 테이프에 전송되거나 가입자의 컴퓨터시스템에 직접 다운로드되는 고객 맞춤형 상품의 도입으로 Bowker사는 《Books in Print》와 《Bowker Power》를 통해 출판사, 서점, 도서관에 대한 서지정보를 통합하고 있다.<sup>67)</sup>

### 3.3. 영국의 운영실태

#### 3.3.1. SBN

영국은 ISBN 제도를 처음 창안하여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상품코드로 발전시킨 나라이다. ISBN의 전신인 표준도서번호 SBN(Standard Book Number)은 영국 내의 도서코드로서 1967년에 시작되었다.<sup>68)</sup>

그때까지 영국 내에서는 자사의 출판물에 번호를 붙이는 출판사가 있었지만 그것이 체계적이지는 못했다. 표준화되고 체계화된 번호의 필요성은 1965년 영국 최대의 서적판매체인인 W.H. Smith사가 컴퓨터로 상품관리를 하는 획기적인 신점포를 계획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Smith사와 영국출판협회는 공동으로 런던상과대학의 Gordon Foster 교수에게 도서번호부여의 표준시스템에 관한 연구를 의뢰하였다. 그결과 1966년에 발표된 보고서에서는 “.....표준도서번호부여를 업계가 도입해야 할 필요성은 분명하며 따라서 모든 당사자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라고 적고 있다. 1967년에 완성된 이 도서번호시스템은 1967년 런던의 J. Whitaker에 의해 도입되었다.

현재 영국의 ISBN 관리기구는 J. Whitaker & Sons Ltd.의 자회사중의 하나로 운영되고 있다. 4명의 직원이 오직 발행자번호를 부여하는 일과 그에 관련된 지도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범출판계 인사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도 없다. 이러한 관리기구의 운영방식은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영리적인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다르고 다른 국가와도 차별된다. 영국의 ISBN 관리기구에서는 발행자번호를 부여할 때 수수료를 받고 있다. 수수료는 명목상 등재부 제작비용처럼 표방하고 있지만 발행자기호의 자리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서명식별번호 100자리가 £199.75, 1,000자리가 £599.25, 10,000자리가 £1,175이며 1999년 10월부터 신규 신청자에게는 등록세(£50+

---

67) 이재원, 앞의 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p.24

68) 松平直壽, 앞의책, 1995, p.64.

VAT)를 받고 있다. 신청에서 발행자번호 배정까지는 10일이 걸리지만 발행자번호가 급한 경우는 기본수수료에 £30의 급행료를 내면 3일 내에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sup>69)</sup> 전화상담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분당 50페니의 상담료를 부담해야 한다

2001년 8월 73,516개 출판사가 발행자번호를 사용하고 있으며 도서 표기율은 98%에 육박하고 있다.<sup>70)</sup>

영국은 대형서점 거의 전부가 전자적 판매정보시스템(EPOS)을 운영하고 이 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판매정보를 출판계가 활용하는 체제여서 출판인들은 ISBN이 없으면 유통시장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ISBN의 표시, 위치, 규격, 바코드 심벌 등의 표준을 정하는 일은 BIC(Book Industry Communication)에서 관장하고 있다. BIC에서 발행한 매뉴얼 《Barcoding for Books》(1992년판)에 의하면 도서에 대한 바코드는 다음 4가지로 되어 있다.<sup>71)</sup>

#### 1) 기본형

EAN/ISBN 체계만 표시한 형태이다. 이 기본 심벌은 EAN-13 바코드형으로 바코드 위쪽에 육안으로 판독이 가능한 ISBN을 표시한다.

#### 2) 확장형

EAN/ISBN과 가격을 나타내는 5자리수의 부가기호를 포함한다. 이 확장용은 출판사의 반품처리용으로 활용되는데 주로 포켓용 문고판에 표시하고 있다. 서점 EPOS에서 이 부가기호는 활용되고 있지 않다. 5자리의 부가기호는 영국의 파운드화를 나타내며 항상 '0'과 '1'로 시작된다. 부가기호 위쪽으로 3개 횡선을

---

69) 국립중앙도서관, “제27차 ISBN센터장회의 참가보고”공문, (1999. 11. 12)

이것은 본인이 Whitaker를 직접 방문하여 담당자와 면담한 내용이다.

70) <http://www.isbn.spk-berlin.de/html/progress/2001/unitking.htm>

71) 국립중앙도서관, 앞의 책, 1998, pp.142~144.

그어서 사용자들은 그 선이 가격을 나타내는 심벌임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 3) 선택형 1(사내 이용형)

출판사가 자사의 정보를 나타내기 위해 나름대로 독자적인 부가기호를 사용한다. 따라서 부가기호의 내용은 출판사마다 다르다. 5자리의 부가기호는 '90000-98999'의 범위 내에서 항상 '9'로 시작한다.

### 4) 선택형 2(단축형)

사내 주요업무를 위한 두 자리수 부가기호를 가진 EAN/ISBN 체계로 '00'에서 '99'의 범위 내에서 출판사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

표시위치는 책 뒷표지나 자켓의 뒷면 하단 우측 모서리로 정하며 최소한 책 등에서 6mm를 띄운다. 전표 케이스, 포장 상자 등에도 바코드 심벌을 표시한다.

## 3.3.2. ISSN

영국의 잡지코드체계는 ISSN 코드체계를 따르며 국가관리기구는 영국국립도서관내 UK National Serials Data Center에서 담당한다.

(예)

<u>9</u>	<u>7</u>	<u>7</u>	<u>X X X X X X X</u>	<u>0 0</u>	<u>X</u>	<u>X X</u>
ISSN 프라그			ISSN	가격기호	체크기호	부가기호

가격기호는 소매가격을 자체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호화된 가격이다. 즉 13자리 중에서 기본가격은 '00'으로 시작하며 가격이 변경될 때마다 01, 02, 03, ...으로 코드를 바꿔 나간다.

1980년부터 시작된 바코드의 표시는 영국잡지협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현재 일반상업잡지도 거의 100%의 표시율을 보이고 있다.

### 3.3.3. 도서정보 DB 시스템 운영

영국의 Whitaker사는 1874년이래 서지정보를 출판해 오고 있는데, 처음에는 《The Reference Catalogue of Current Literature》라는 이름으로 출발했으나 나중에 《British Books in Print》라고 부르게 된 것이 그것이다.

해외에서 발행된 도서의 수록범위가 늘어남에 따라 오늘날 Whitaker사의 주요 데이터베이스는 《Whitaker's Books in Print》로 부르게 되었다. 이 서지정보는 종이 인쇄물과 마이크로 피시, 마그네틱 테이프, CD-ROM과 온라인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발행주기도 주간, 월간, 격월간, 계간, 연간으로 나뉜다. Whitaker사의 서지정보는 106개 나라의 서적상들과 사서들에 의해 사용되고 있다.<sup>72)</sup>

신간정보는 출판되기 전 최소 3~6개월 이전에 수집되고, 출판 2년 전에 수록되는 것도 적지 않다. 수록 데이터는 청색 양식의 신청서에 18개 항목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한다. 기재항목은 ① ISBN ② 가격(£) ③ 체분양식 ④ 저작자명과 필명 및 생년월일 ⑤ 번역일 경우 원전의 언어와 발행사항 ⑥ 제호와 부제 ⑦ 규격(판형) ⑧ 페이지수 ⑨ 삽도 사항 ⑩ 시리즈명 ⑪ 판차 ⑫ 해제(350자 이내) ⑬ 출판지 ⑭ 독자대상 ⑮ 표제지의 출판사명과, 그 외에 실제 출판사명, 발매자(출판사와 다를 경우), 발매자 주소 등이다.

신간정보 DB에 수록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개월 이전에 신청서에 구체적인 데이터를 기재하여 통보하며 그 사본을 가지고 있다가 변경사항이 있으면 소정의 청색엽서를 통해 그 내용만을 통보한다. 이 최신 정보는 즉시 《Whitaker's Books in Print - Bookbank》와 마이크로피시에 계속 수록된다. 항상 《Books in Print》정보의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 수록된 도서가 출판된 뒤에도 ISBN

---

72) 김중수, 『유럽도서유통에 관한 고찰』, 한국출판연구소, 1997, p.35.

이나 정가 및 할인율, 재고상태, 서명 등의 변경사항을 즉시 제공하기를 바라고 있다. 통보방법은 최신재고목록, 컴퓨터 출력자료, 제공엽서 등 형식이나 체제는 관계없는데 최근에는 컴퓨터 통신을 통한 E-mail이 전체의 60%를 넘고 있다고 한다. 100여명의 직원들 중 26명의 숙련된 전문사서가 출판사로부터 입수된 신간정보를 대외용과 사내용 두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데 DB 구축과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요한다. 대외용 분류에는 DDC(Dewey Decimal Classification), BIC 주제분류법, 대영도서관 저자명 작성법 등 세 가지 기준이 적용된다. 중복 여부의 점검, 입력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입력자와 교정자를 분리하며 작업자의 실명제를 택하고 있다. 신청서의 처리과정과 소요시간은 접수에서 등재가 1일, 출판사 사항 대조기간 1~2일, 분류 1~2주, 입력과 DB 구축작업 2일 등 대략 2~3주가 소요된다.<sup>73)</sup>

오리지널 《Book Bank》는 영국 내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미국,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출판사나 DB 구축업체와 제휴하여 현재는 범세계적인 영어판 도서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73) 국립중앙도서관, 앞의 책, 1998, pp.157~163.

## 제4장 국제표준자료번호의 활용과 문제점

### 4.1. 도서관에서의 활용

ISBN이 처음 설계되었을 때의 목적은 유통되는 출판물의 식별을 보다 간편히 하고 표준화된 기호로 거래업무를 효율화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ISBN이 본격적으로 조직화되고 실천단계에 들어가자 서지 업무에 지대한 효용이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서지 정보의 작성에 있어서 ISBN은 전산화된 목록시스템의 데이터를 보존하는 마스터 파일의 기본순차(Base Address)가 될 수 있다. 영국의 UK MARC와 스웨덴의 LIBRIS에서는 ISBN을 control number로 사용하고 있다.<sup>74)</sup>

1992년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국제도서관협회연맹총회(IFLA)에 참석한 세계각국의 도서관을 중심으로 조사된 항목을 정리해 본 ISBN의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sup>75)</sup>

- 1) 자료의 주문·검수 [서점 또는 발주처에 ISBN으로 청구·접수]
- 2) 각종서지(국가문헌목록 등)에 명시 [발행자, 주소, 가격 등의 정보]
- 3) 상호대차제도의 통신 키로 사용 [쌍방간의 통신수단으로 사용]
- 4) 종합목록의 작성 [ISBN 하에 각 도서관 소장부호 등재]
- 5) 출판사별(연구기관별) 구입현황 분석 [출판사번호로 검색 확보여부 확인]
- 6) 소급서지 작성시의 기본 키 [소급 서지의 다운로드 시 활용]
- 7) 서지 데이터의 검증 [중복 데이터의 확인 등]
- 8) 출판예정 도서의 공지 [Forthcoming Books의 공공통지 가능]

기타 납본도서의 확인절차로서 ISBN은 중요한 구실을 하게 되며 지적소유권

---

74) 현규섭, 앞의 논문, 1988, pp.7~8.

75) 국립중앙도서관 ; 대한출판문화협회, 『ISBN적용 POS시스템 운영사례 발표회 자료집』, 1995, p.21.

의 증거번호로서도 중요한 입증자료가 될 것이다.

국제표준서지기술법(ISBD)에서는 ISBN을 목록의 기술요소로 채택하였으며, 영미목록규칙(AACR2)이나 일본의 목록규칙에서도 ISBN을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KORMARC(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 기술규칙에서 020필드에 ISBN을 기술하게 되어 있다.<sup>76)</sup>

도서관간의 상호대차도 ISBN을 사용하여 요청하거나 반납을 받으면 정확성에 있어서나 간략성에 있어서 다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효과적이다. 상호대차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종합목록의 편찬에도 ISBN이 사용된다. 영국의 런던과 남서지역의 도서관 협동체제인 LASER(London and South-Eastern Library Region)에서는 ISBN에 의한 종합목록을 편찬하고 있다. 1970년 4월에 LASER는 BNB(British National Bibliography : 영국국가서지)의 협조를 얻어 ISBN에다 협력도서관의 소장표시를 부가하는 방식으로 종합목록을 편찬하기 시작했다. 1980년 보고에 의하면 55~60%의 상호대차가 ISBN을 사용하여 처리되었고, 그것이 LASER의 종합목록에 의하였음이 밝혀졌다.<sup>77)</sup>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헌번호센터에서는 우리나라의 출판사·서점·도서관을 대상으로 하여 ISBN/ISSN의 활용실태를 조사한 바 있다. 『한국문헌번호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 작성을 위해 1998년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 한국문헌번호의 표시 및 이용현황, 보급촉진을 위한 과제, 코드체계나 표시방법에 대한 검토, 번호의 유효성 제고방안 등을 알아보려는 목적으로 설문지 조사를 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에 대한 회수율은 출판사 17.0%(493통 발송에 84통 회수), 서점 16.5%(381통 발송에 63통 회수), 도서관 36.0%(100통 발송에 36통 회수)이다. 전체로는 974통 발송에 183통 회수가 되어 회수율은 18.8%이다.<sup>78)</sup>

---

76)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 1993, p.40.

77) 현규섭, 앞의 논문, 1988, p.9.

78) 국립중앙도서관, 앞의 책, 1998, p.43.

설문지 조사 결과에 의하면 도서관에서의 ISBN에 대한 인식은 58.3%가 ‘서지 업무에 꼭 필요한 데이터’로, 27.8%가 ‘참고 데이터’로, 11.2%가 ‘출판사와의 연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응답함으로써 이 제도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높고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도 전체 도서관의 94.4%인 34개관이 ISBN/ISSN을 목록업무에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어느 정도의 활용을 하고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로 하고 보면, 55.8%가 목록업무에서의 활용을, 56.1%가 검색기로 사용하고 있다. 작업은 모두 스캐닝이 아닌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며 수서 업무에 적용하는 도서관이 6개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아직은 서점과의 수·발주업무에의 활용이 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sup>79)</sup>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ISBN이 서지 데이터 구축에 있어서 기본사항으로 들어가 있으며 컴퓨터로 검색 시에는 검색키가 된다. 또 국립중앙도서관이 발간하는 국가서지 『납본월보』와 『대한민국출판물총목록』 인쇄본에도 ISBN이 기술되고 있다. 『납본월보』는 일반도서항목을 한국도서번호의 부가기호 중 내용분류기호를 사용한 10구분으로 주제 구분하여 수록한다.

국립중앙도서관 미납본자료의 확인에도 ISBN이 사용되고 있다. 한국문헌번호센터에 전송된 <도서번호통보서>로 도서정보 DB를 구축하면 데이터들이 미납본관리 DB로 들어간다. 이들 데이터 중에서 출판일이 법적 납본 기간인 30일이 지났으나 납본되지 않은 데이터들은 그대로 미납본 관리파일에 남게 되어 납본이 될 때까지 미납본 DB로 구축되어 있다. 이때 상호대조의 검색키가 되는 것이 ISBN이다. 납본된 출판물의 등록 시에도 ISBN을 입력하여 한국문헌번호센터에서 기입력한 도서정보 데이터를 등록화면으로 불러온다. 화면에는 서명, 부서명, 저·역·편저자, 권차, 판차, 발행사항, 시리즈명, 가격 등이 나타나며 실제의 자료와 달라진 사항이 있으면 이를 수정한 후 저장한다. 이 데이터들은 그대로 국립중앙도서관 서지 마스터 파일로 구축된다.

---

79) 국립중앙도서관, 위의 책, 1998, p.47, 59.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구입하는 외국서적의 주문과 검수에도 ISBN은 필수 대조 사항으로서 다른 어떤 검색항목에 우선하고 있다.

## 4.2. 출판사에서의 활용

출판사는 ISBN을 부여하는 원천적인 기관으로서 실질적인 작성자이다. 자사 출판물의 ISBN은 특히 경영 프로그램에 필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활용방법은 다음과 같다.<sup>80)</sup>

- 1) 제작서명별 관리공정 관리 [공정관리의 기본 코드명으로 상용]  
[인쇄소와의 연결코드]
- 2) 현품발주·납품·검수관리 [예정일 점검]
- 3) 판매·회계관리 [단품별, 주제별, 저자별, 출판사별, 판매관리]  
[주제별, 시간대별(계절·주일별 판매량 조사)]
- 4) 재고·반품조사 [잡지=3~10책 판매실적과 재고분석]  
[도서=결권조사, 반품처리 결정]  
[창고관리]
- 5) 고객의 분석 [해당출판사에서 중점관리하는 품목의 관리]
- 6) 중점상품의 관리 [해당출판사에서 중점관리하는 품목의 관리]
- 7) 자료검색 [ISBN DB를 활용하여 저자, 서명, 주제명 등으로 검색]
- 8) 광고의 시기 및 효과분석 [발주량과의 비교검토 시간 안내의 작성]

센터의 설문지 조사에 따르면 출판사의 20.2%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11.9%가 '의무로 느끼거나 별 도움이 안될 것으로 생각'하는 등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별로 사용하지 않으나 앞으로 필요할 것이다'에 64.3%가 응답함으로써, 실제 사용율은 높지 않으나 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판

80) 국립중앙도서관 ; 대한출판문화협회, 앞의 책, 1995, p.20.

사들이 ISBN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있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보면 제작관리(31.0%), 원가관리(3.6%), 재고관리(13.1%), 수주관리(10.7%), 출하관리(17.9%), 반품관리(10.7%), 저자인세관리(2.4%), 기타(6.0%), 무응답(4.8%)으로 나타나 개별업무에 대한 비율은 낮으나 활용분야는 넓은 것을 알 수 있다.<sup>81)</sup>

아직까지 ISBN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출판사들이 많지 않고, 적용하는 업무는 다양하나 개별업무에 대한 비율이 낮은 것은 우리나라 출판사들의 영세성과 함께 여전히 정보화에 대한 마인드와 인프라 구축이 안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sup>82)</sup>

### 4.3. 서점 등 유통업체에서의 활용

서점계는 ISBN 제도를 최초로 발의한 제안자로서 활용에 있어서도 가장 활발하게 시행하여 오고 있다. 영국의 최대서점이자 ISBN의 필요성을 제기한 W.H. Smith사와 일본의 서적유통업체인 日本販賣株式會社の NOCS, 東京販賣株式會社の Tonets, 일본서점연합회가 주관하여 운영하고 있는 BIRD Net의 보고서에 기초하여 서점계에서 실현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정리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sup>83)</sup>

- 1) 현품 발주·납품·검수관리\* [예정일 점검]
- 2) 판매관리·회계관리\* [단품별, 주제별, 저자별, 출판사별 판매관리]  
[주제별, 시간대별(계절·주일별 판매량 조사)]
- 3) 재고·반품 조사\* [잡지=3~10책 판매실적과 재고분석]  
[도서=결권조사, 반품처리 결정]
- 4) 진열공간 조절 [부문별, 진열방식에 따른 공간의 사전 조정]

81) 국립중앙도서관, 앞의 책, 1998, p.46, 57.

82) 정보화시대의 첩병이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과 관련하여 출판사의 홈페이지 구축 여부를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17.3% 만이 구축하였으며 개인회사 보다는 주식회사, 주력출판물로 잡지와 학습참고서를 취급하는 출판사의 비율이 높았다. (한국출판연구소, 『한국출판산업 실태조사』, 2000, p.93.)

83) 국립중앙도서관 ; 대한출판문화협회, 앞의 책, 1995, p.19.

- 5) 고객의 분석\* [남녀, 연령, 직업 등으로 분석 가능]
- 6) 중점상품의 관리\* [해당 서점에서 중점 관리하는 품목의 관리]
- 7) 자료검색\* [ISBN DB를 활용하여 저자, 서명, 주제명 등의 검색]
- 8) 담당자별 관리현황 분석 [판매대의 편중현상 관리]

(\*는 출판사와 동일한 방법임)

센터의 설문지조사를 보면 서점경영자들의 ISBN에 대한 이해도에 있어서 ‘구체적이지는 않으나 알고 있거나, 잘 알고 있다’가 각각 42.8%로 나타났으며 ‘전혀 모른다’가 11.1%였다. ISBN 제도가 유통업계의 이익과 직결되는 제도라는 입장에서 볼 때 응답자의 과반수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한 것은 문제가 되는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POS 시스템 도입과도 관련이 되는데 ‘현재 도입·운용중인 곳’ 41.3%와 ‘과거에 도입했었으나 지금은 운영하지 않는 곳’ 6.4%를 합친 47.7%와 직결되는 수치임을 보여준다. ‘앞으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곳’이 36.5%이나 ‘전연 도입 의사가 없는 곳’도 15.8%에 이른다. POS시스템 운영의 효과로는 ‘업무의 신속·정확한 처리’ 84.6%, ‘대고객 서비스 향상’ 73.1%, ‘인력절감’ 30.8%, ‘경비절감’ 26.9%로 나타났으며 애로사항으로는 ‘상품 정보의 입력’ 65.4%, ‘ISBN/ISSN 표시율 저조’ 53.8%, ‘운영 프로그램의 문제’ 30.8%, ‘직원부족’ 3.8%로 나타났다. 바코드 활용분야를 보면 판매관리(96.2%), 발주관리(76.9%), 반품관리(73.1%), 재고관리(73.1%), 진열관리(34.6%), 종업원 관리(3.8%), 고객관리(42.3%), 기타(11.5%)로 복수응답임을 감안해도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ISBN 코드가 서점 경영활동의 기초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84)</sup>

이상에서와 같이 ISBN은 서점의 출판물 유통에서 가장 중요한 판매관리시스템 일 뿐 아니라 고객의 분석, 중점상품의 관리 등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으로 개발할 수 있다. 자료 검색기능은 대형서점인 경우

84) 국립중앙도서관, 앞의 책, 1998, p.52, 58.

자신의 DB를 활용하지만 소형서점인 경우는 중앙에서 공급하는 DB를 활용하여 소급정보와 최신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된다. 일본의 경우는 이러한 일들이 대형 유통기구(日販, 東販 등)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소형서점의 경우는 POS 시스템이 도입되어도 정보의 공급체계가 없을 경우에는 입수된 도서의 정보를 자체 입력해야 하는 비효율성의 문제가 생긴다.<sup>85)</sup>

#### 4.4. 국제표준자료번호의 구조적 문제

도서관·출판사·서점에서의 ISBN/ISSN 활용 분야는 광범위하지만 실제로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원인들이 존재하고 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ISBN/ISSN 자체가 가지는 구조적인 문제를 들 수 있다. 제도의 활용을 저해하는 내적인 요소로서 번호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파악하는 것은 서점의 전산시스템에서의 활용이라는 외부적인 환경요소와 함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 4.4.1. ISBN 표기율과 오용실태

ISBN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문헌번호센터에서는 ISBN의 도서에 대한 표기율을 높이기 위해 매년 그에 대한 사용실태와 오용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ISBN의 도서 표기율을 표시한 다음의 표는 순수한 일반도서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여기에는 정부간행물은 제외되었다.<sup>86)</sup> 주로 비매품으로 발간되는 정부간행물까지 포함시키면 ISBN 표시율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sup>87)</sup>

---

85) 국립중앙도서관, 위의 책, 1998, pp.12~13.

86) 2000년도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된 도서는 일반도서가 49,917종, 공도서가 3,439종으로 일반도서의 6.4%이다.(국립중앙도서관, “납본접수현황통계 - 2000년도”)

87) 국립중앙도서관 납본자료에 대한 서지정보를 알려주는 『납본월보』 2001년 10월호에는 정부간행물 355종이 수록되었다. 그 중에 ISBN이 부여된 것은 19종에 불과하다.

다음은 교보문고에 납품된 도서의 ISBN 표기율을 조사한 것이다.

<표4-1> 2000년도 교보문고 납품도서의 ISBN 표기율

내 용 구 분	총 종 수	ISBN 표기종수	표기율(%)
유아/여성	2,361	1,673	70.86
아동	4,959	3,966	79.98
종교	3,389	2,652	78.25
유아영어	3,218	2,585	80.33
소설	2,379	2,213	93.02
비소설	2,976	2,606	87.57
인문	3,215	2,654	82.55
정치/사회	2,841	2,391	84.16
경제/경영	4,082	2,883	70.63
자연과학	2,100	1,665	79.29
기술공학	1,484	1,115	75.13
컴퓨터	2,775	2,557	92.14
예술	2,650	1,819	68.64
외국어	2,410	1,747	72.49
학습	2,005	1,618	80.75
CD-ROM	1,294	1,294	100.00
사전잡지	1,391	420	30.19
<b>합 계</b>	<b>45,529</b>	<b>35,859</b>	<b>78.76</b>

(출처 : < ISBN 사용자설명회> 주제발표자료, 2001. 4)

\* 이 자료는 교보문고 인터넷 사업부에서 작성한 것이다.

\*\* 사진, 잡지를 제외하면 표기율은 80.29%이다.

\*\*\* 책의 내용 구분에 따라 표기율이 25%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주판매방식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sup>88)</sup>

88) 소설이나 수필 등의 문학서의 경우 주로 서점을 통해서 공급되는 반면에, 전공서적

센터에서는 1998년부터 번호사용에 대한 오용 조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번호가 도입된 지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일부출판사들이 제도의 성격, 운용과 활용방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다른 출판사에서 사용한다거나, 납품처인 서점에서 바코드를 요구하기 때문에 ISBN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용사례가 다수 발생한다.

조사방법은 일정 기간 동안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된 자료 중에서 일반도서를 대상으로 스캐너를 활용하여 바코드 실태 및 도서번호 오용실태를 조사하였다.

다음은 그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

의 경우 별도의 판로망(대학구내서점 등에서의 주문판매)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4-2> ISBN 오용조사 내역

내 용 차 수	조사 기간	대상 자료 수	오용률	오 용 내 역							
				ISBN	발행자 번호	서명식 별번호	체크 기호	부가 기호	세트 번호	바코 드	기타
1	'98.5.20 - 6.3	728	30.0%	77	9	23	26	33	43	89	
2	'98.8.1 - 31	5,993	31.0%	552	65	12	35	347	219	95	675
3	'99.1.2 - 31	6,438	22.0%	824	194	70	42			230	32
4	'99.5.1 - 31	3,114	23.0%	460	32	44	24	190	134	44	14
5	'99.8.1 - 31	4,088	21.0%	412	68	42	30	378	284	80	
6	'99.11.1 - 30	4,648	21.0%	442	42	64	48	342	224	58	
7	'00.2.1 - 28	6,454	17.0%	419	26	40	9	101	358	32	
8	'00.6.1 - 30	6,828	20.3%	966	24	42	18	152	276	38	
9	'01.2.1 - 28	3,186	18.9%	322	44	42	20	206	170	44	
10	'01.7.1 - 31	2,396	18.4%	154	34	8	4	152	138	2	
	<b>비율</b>			<b>42%</b>	<b>5%</b>	<b>4%</b>	<b>2%</b>	<b>17%</b>	<b>7%</b>	<b>6%</b>	<b>7%</b>

(출처 :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오용사례 결과보고서> 1998~2001)

\* 한 책이 여러 항목의 오용에 해당되는 이유로 인해 오용책수에 의한 오용율과는 차이가 있다.

\*\* 기타인 경우는 센터로 <도서번호통보서>를 보내지 않거나 내용이 달라진 경우이다.

\*\*\* 3차의 경우 부가기호와 세트번호 항목을 설정하지 않았다.

위의 표에서 나타난 오용내역의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sup>89)</sup>

1) ISBN 자체에 대한 오용율이 전체 오용율의 42%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판권지에 표기를 안한 것이 가장 많고 다음이 번호부여를 안한 것, 바코드와 위치가 바뀐 것, 표지(판권지)에 잘못 표기한 것 순으로 되어 있다.

2) 두 번째 높은 비율이 부가기호와 세트번호이다. 부가기호는 잘못 부여한 것이 대부분으로 부가기호 내에서도 내용분류기호의 오류가 가장 많았다. 세트번호는 아예 부여를 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3) 바코드는 불량으로 스캐너로 판독이 안 되는 경우이다.

4) 발행자번호 오용은 다른 출판사의 발행자번호를 사용한 경우로 드물게는 인쇄상의 오류로 일부 숫자가 바뀐 것도 있다.

5) 서명식별번호는 표지와 판권지에 다르게 표기한 경우도 있으나 하나의 번호를 중복 사용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6) 체크기호는 계산이 틀린 것이며 간혹 표시를 안한 것도 있다.

이러한 오용사례에 대하여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을 다음에 나오는 발행자들의 제도에 대한 인식과 부가기호에 대한 적용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한다.<sup>90)</sup>

---

89) 한국문헌번호센터,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배정발행처설명회자료집』, 국립중앙도서관, 1998, 1999, 2000, 2001 (부록)

90) ISBN오용율 조사에 있어서 교보문고는 국립중앙도서관과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교보문고에 의하면 1999년 1~11월까지의 도서표기율 80.1%에 오용율은 4.1%, 2000년은 78.76% 표기율에 2.3%의 오용율이 나타났다.(ISBN 사용자설명회 강의내용, 2000~2001)

이것은 교보문고의 경우 바코드와 관련된 부분만 오용으로 잡은 것으로 부가기호나 세트번호에 대한 것은 무시한 결과로 인한 것이다.

#### 4.4.1.1. 제도에 대한 인식

<표4-2>에서 볼 수 있듯이 ISBN 오용율은 1998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두 자리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1차와 2차 조사에서 오용율이 30%를 상회한 것은 센터가 1991년 ISBN 제도를 시행한 이후 번호의 보급에만 신경을 썼을 뿐 번호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 가에는 전연 관심을 가지지 못한 때문으로 보인다. 센터에서는 발행자번호를 배정 받고자 하는 출판사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으나<sup>91)</sup> 실제 번호사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것은 1998년이 처음이었다. 그해 5월 처음으로 국립중앙도서관 납본도서를 대상으로 오용사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8월에는 2차 조사가 있었다. 1999년에는 분기별로 한 번씩 총 4번, 2000년과 2001년에는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씩 두 차례 조사를 하였다.

계속되는 조사와 후속조치로서 오용 출판사에 대한 오용통보공문 발송, 그리고 재교육 차원의 발행자번호 사용자 설명회를 연 1~2회 개최하였음에도 오용율이 한자리수로 내려오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오용이 발생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원인을 들 수 있다.

첫째, 출판사 등 제작자의 ISBN에 대한 인식 부족이다. 국제표준도서번호가 출판 및 문헌정보유통을 위하여 존재하는 제도임에도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다른 출판사가 사용하고 있어서 따라한다거나 교보나 영풍문고 같은 대형서점에서 요구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바코드를 형식적으로 제작·부착하는 등 ISBN을 타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오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

91) 초창기에는 발행자번호를 신청할 때마다 수시로 교육이 이루어 졌으나 센터의 인원 감축과 늘어나는 업무량으로 인하여 매일 일정시간에 교육이 실시되다가 주3회(화, 수, 목)로, 그리고 1999년 1월부터는 지금과 같이 주2회(화, 목) 오후3시에 실시하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 출판사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담당자의 교체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한국출판산업실태조사』(한국출판연구소, 2000년)에 따르면 출판사의 근무인원이 3~4명인 출판사가 27.1%, 1~2명이 22.1%, 5~9명이 21%로 조사대상 출판사의 77%가 10명 미만의 직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경우도 대다수의 인원이 영업쪽의 업무를 하고 있거나 겸임을 한다해도 영업쪽을 우선시하게 된다. 게다가 1997년의 IMF 이후 사장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맡아서 하는 일인출판사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ISBN 업무의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전에 사용한 번호에 대한 관리가 안되고 있다. 게다가 출판사는 책을 발간할 때마다 <도서번호통보서>를 보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거나 아예 그런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다. 이미 발행자번호를 몇 년 전에 받고서도 신규로 신청을 하고, 이제까지 몇 종의 책이 발간되었는지 전연 모르고 있는 출판사들이 종종 나타나는 것은 ISBN 제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셋째, 유통업체의 인식부족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출판사의 ISBN 사용은 유통업체의 POS 시스템과의 연계가 필수적으로 오용이 발생하면 유통업체에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온다. 그러나 도서관매관리에 POS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업체가 많지 않아 출판사들은 올바른 ISBN 사용의 절박함을 못 느끼고 있다. 유통업체의 정보화 현황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컴퓨터나 물류정보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경우’는 61.1%였으며 ‘활용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도 38.9%였다. 운용하는 시스템 코드로는 ‘ISBN’은 31.8%에 불과했으며 ‘업체자체코드를 사용하고 있다’는 응답이 66.7%, ‘ISBN과 자체코드 모두 사용한다’는 응답이 1.5%였다.<sup>92)</sup> 서점에 대한 조사에서는 컴퓨터나 POS 시스템 활용여부에 대하여 ‘활용하고 있다’는 응답은 17.0%에 불과하여 서점의 전산화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POS를 활용하는 서점의 시스템 코드를 알아보면 활용 중인 시스템코드는 ‘ISBN 코드’가 54.2%, ‘서점 자체 코드’를 사용하고 있다는

92) 한국출판연구소, 『한국출판산업실태조사』, 2000, pp.127~129.

응답이 33.9%, 'ISBN과 서점 자체 코드 둘 다 사용한다'는 응답이 8.5%였다.<sup>93)</sup>

넷째, ISBN을 관장하고 있는 한국문헌번호센터의 운영 주체의 문제이다. 현재 센터의 조직은 문화관광부 산하기관인 국립중앙도서관 납본과에 소속되어 있다. 1990년 한국문헌번호센터가 설립되었을 때는 국립중앙도서관 직무규정에 의하여 서지표준과에 속해 있었으나, 1998년 업무분장 개편으로 서지표준과가 폐과되면서 현재의 납본과 소속으로 되었다. 인원도 초창기에는 사무관 1인을 포함하여 4~5인이었으나 지금은 타 업무(단행본 납본)를 겸임한 사무관 1인과 실무자 2인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따라서 발행자에게 ISBN을 배정하고 교육을 하며 ISBN 도서정보를 구축하는 것이 주된 업무가 되므로, 이외에 출판사들의 바뀐 주소를 알아내고 자료에 ISBN이 제대로 표기되었는가를 조사하는 것은 일상업무에 과부하를 가져오게 된다. 또 업무의 성격상 전화문의가 많고 출판사들과 일대일로 상대를 해야 하는 민원성 업무이기 때문에 ISBN에 대한 도서관 직원들의 선호도는 아주 낮은 편이다.

국가기구 센터장인 관리자도 사서직이었던 서지표준과 때와는 달리, 현재의 담당과인 납본과 과장은 행정직으로서 그동안 평균 재임기간이 일년을 넘기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결국 업무의 발전에 있어 커다란 장애로 작용하게 된다. 관리자들의 극단적인 시각 차이는 담당인원 부족 및 잦은 교체<sup>94)</sup>와 함께 ISBN 부여 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 및 후속적인 관리를 소홀하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93) 한국출판연구소, 위의 책, 2000, pp.167~169.

94) 본인이 ISBN 업무를 한 것은 1999년 4월 20일부터 2001년 6월 6일까지이다. 1999년 7월에 납본과 발령을 받아 처음에는 ISSN업무를 했으니 그기간을 모두 더해도 만3년이 안 된다. 담당자의 평균 재직기간은 3년 이내이며 1년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았다.

#### 4.4.1.2. 부가기호의 적용

오용율에서 ISBN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부가기호이다. 한국 문헌번호에서 부가기호는 독자대상기호(제1행), 발행형태기호(제2행), 내용분류기호(제3~5행)로 되어 있다. 독자대상기호는 발행자의 판매의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다음 표에서 해당번호를 하나 고른다.

<표4-3> 독자대상기호

기 호	0	1	2	3	4	5	6	7	8	9
내 용	교양	실용	여성	(예비)	청소년	학습참고서 (중고교)	학습참고서 (초등학교)	아동	(예비)	전문

(출처 :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헌번호편람』, 2000, p.22.)

발행형태기호는 발행형태 또는 형식에 의한 분류로 다음표에서 해당되는 번호를 하나 고른다.

<표4-4> 발행형태기호

기 호	0	1	2	3	4	5	6	7	8	9
내 용	문고	사전	신서판	단행본	전집류	(예비)	도감	그림책	혼합·전자 전자책	(예비)

(출처 :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헌번호편람』, 2000, p.23.)

부가기호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내용분류기호의 오류이다.

내용분류기호는 한국십진분류법(KDC) 제4판을 크게 100구분으로 나눈 표에서 ISBN을 부여하려는 자료의 주제에 따라 앞부분 두 자리를 선택하고 끝자리는 '0'을 붙이도록 되어 있다.(표4-5 참조)

(예)

《경제학개론》(은하출판사 刊) ISBN 89-316-2005-5 93320

: 부가기호 93360은 전문서, 단행본으로 내용분류가 320(경제학)

《살아있는 날의 시작》(세계사 刊) ISBN 89-338-0035-2 03810

: 부가기호 03810은 교양서, 단행본으로 내용분류가 810(한국문학)

부가기호는 ISBN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부가적인 성질을 가진 요소로 이의 사용여부나 그 내용 또한 자국의 사정에 의해 임의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ISBN 도입시 부가기호를 넣어서 한국도서번호를 만든 것은 일본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생각된다.<sup>95)</sup> 부가기호는 업계 통계와 서점의 판매분석과 발행자에게는 신간 기획시 의사결정에 이용된다. 이 번호들은 출판사가 각각의 코드표에서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번호를 골라서 붙일 수 있다. 특히 내용코드는 서지학적인 관점을 가지면서 영업적인 안목으로는 서점의 서가배열에 기준이 되어 독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원하는 책을 보다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준다.

다음은 부가기호 중 내용분류기호표이다.

---

95) 일본도서코드의 부가기호에는 분류코드와 가격코드가 있다. 우리는 별도의 가격코드를 사용하지 않지만 분류코드의 경우 우리의 부가기호와 거의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내용분류의 경우 일본십진분류(NDC)를 사용한다.  
(日本圖書コード管理センター, 앞의 책, 1998, p.15.)

<표4-5> 내용분류기호표

	0	1	2	3	4	5	6	7	8	9
0 총류	총류	도서학 서지학	문헌정 보학	백과 사전	강연집 수필집	연속간 행물	학회, 단체	신문 언론	전집 총서	향토자 료
1 철학	철학 일반	형이상 학		철학 체계	경학	동양 철학	서양 철학	논리학	심리학	윤리, 도덕
2 종교	종교 일반	비교종 교학		불교	기독교 외	도교	천도교 외	神道	회교 외	기타제 종교
3 사회	사회과학 일반	통계학	경제학	사회학	정치외 교학	행정학	법학	교육학	민속학	군사학
4 순수	순수과학 일반	수학	물리학	화학	천문학	지학	광물학	생명 과학	식물학	동물학
5 기술	기술과학 일반	의학 외	농수산 학	공업 일반	건축 공학	기계군 사공학	전기전 자공학	화학식 품공학	제조인 쇄술	가사가 정학
6 예술	예술 일반	건축술	조각	공예 외	서예	회화 외	사진술	음악	연극 무용	오락 운동
7 어학	어학 일반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독일어	불어	스페인 어	이태리 어	기타어
8 문학	문학 일반	한국 문학	중국 문학	일본 문학	영미 문학	독일 문학	프랑스 문학	스페인 문학	이태리 문학	기타문 학
9 역사	역사 일반	아시아 사	유럽사	아프리 카	북아메 리카	남아메 리카	오세아 니아	양극 지방	지리 관광	전기 족보

(출처 :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헌번호편람』, 2000, p.25.)

\* 표를 보는 방법은 먼저 왼쪽의 세로줄에서 첫 번째 번호를 택한 후 그 번호의 오른쪽 가로줄을 따라 가서 두 번째 번호를 선택한다.

\*\* 책의 주제가 두 분야 이상일 때는 보다 중점적인 분야를 택한다.

내용분류를 구성하고 있는 한국십진분류법(KDC) 제4판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도서분류법이다. 일부 대학이나 전문도서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에서 이것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도서의 주제 분류작업은 사서들이 하는

업무중에서도 가장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일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도서관의 전문적인 업무인 자료분류에 기초한 이러한 분류체계를 학문적 배경이 없는 출판사 직원들이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우리의 지식체계를 0~9까지로 십 구분하고 그 안에서 또 각각 십 구분하여 백가지 주제로 만든 내용분류기호표를 보고 일반인들이 자사의 발간물에 부여하는 것은 더욱 더 어려울 것이다<sup>96)</sup>. 게다가 학문의 급속한 발달과 학문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요즘에는 도서관의 전문사서 마저도 분류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검색시스템의 다양화로 분류의 무용론까지 등장하고 있는 현실이다.

실제로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은 대부분의 대형서점들은 각자 자기 나름의 서가 진열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ISBN의 <내용분류표>와의 차이는 교보문고의 매장 내 도서진열체계인 <표4-1>과 <표4-3>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중소형서점에 있어서는 ISBN 부가기호의 활용도는 더욱 낮을 것으로 보인다. 부가기호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는 서점의 경영자가 얼마나 되는가에 대한 센터의 설문지 조사를 보면, 서점에서의 부가기호 활용도 조사에서 ‘이용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19.1%, ‘이용하지 않는다’ 23.8%, 무응답 57.1%로, 여기서 무응답은 부가기호의 의미 자체를 모르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부가기호의 내용변경을 묻는 항목에서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부가기호를 ‘현재의 분류기호로’ 3.2%, ‘가격표시로’ 1.6%, ‘분류기호+가격표시로’ 15.9%, ‘여기에 거래처 포함’ 4.8%이고, 무응답이 42.8%를 차지함으로써 이들은 부가기호 활용도조사에서의 무응답과 동일한 선상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sup>97)</sup> 센터의 정기 교육이나 1년에 1~2회 개최하는 사용자설명회는 모두 출판사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ISBN 도입이후 단 한번 서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있었을 뿐이다.<sup>98)</sup>

96)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발간하는 『남분월보』 10월호 원고를 보면 일반도서 총 2,599종에서 내용분류가 잘못된 것이 70종으로 주로 총류와 문학분야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97) 국립중앙도서관, 앞의 책, 1998, pp.62~64.

98)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ISBN적용 POS 시스템 운영사례 발표회>가 1995년 12월 20일에 국립중앙도서관과 대한출판문화협회 공동으로 개최되었다. 여기서는 대동서

세트번호에 대한 오용도 부가기호 다음으로 많은데 대부분이 아예 부여를 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의 제목으로 전집·총서·다권본이 나오는 경우, 그 전집명·총서명·다권본명에 별도의 번호를 하나 더 부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이다. 그 원인은 주로 세트번호의 사용목적에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데에 있다. 이 경우 출판사에 직접적으로 손해를 입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낱권 판매와 세트 판매가 동시에 혹은 나중에 결정이 될 경우라도 세트번호가 없으면 세트 판매 시 바코드를 부착할 수가 없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비도서 매체에서 많이 나타난다. 현실적으로 교재와 함께 카세트테이프나 비디오테이프 등을 같이 발행하는 경우 판매방법이 다양한데 따른 번호부여 대처능력이 떨어진다.

세트번호는 판매방식의 다양성과 가변성으로 인하여 번호부여에 있어서 센터의 담당자들도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다. 예를 들면 1권이 없이 2, 3권이 나오는 경우(이것은 기획상의 문제로 드물지 않게 나타난다), 전체를 세트로 묶고 그 속에 또 세트들이 나뉘어 있는 경우, 하나의 출판물이 2개 이상의 동급 단위 세트로 묶이는 경우 등으로 이것은 비도서 매체에도 똑같이 적용되어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이다.

#### 4.4.2. ISSN의 오용실태와 활용

ISBN과는 달리 ISSN의 경우 아직까지 서점 등 유통업계에서의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표기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짐작된다. 도서관 등에서의 실질적인 활용분야도 많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ISSN의 오용실태와 함께 ISSN의 실질적인 활용사례로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구축한 학술정보통합서비스시스템에서 ISSN-Compact의 활용사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

림, 신춘문고, 여시아문, 서울문고, 교보문고의 서지정보 시스템구축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 4.4.2.1. ISSN의 오용실태

간행물의 ISSN 표기율이나 오용율에 대한 자료는 찾기 힘들다. 기본적으로 표기율 조차도 폐간되는 잡지의 수<sup>99)</sup>가 매년 신규 등록수를 넘고 있음에도 센터에서는 이에 대한 조사를 하지 못한다.

『정기간행물현황』(문화관광부, 2000)에서 잡지의 등록현황을 보면 2000년에 등록된 신규잡지가 1,295종으로, 같은 기간에 ISSN을 받은 일반잡지의 종수는 341종<sup>100)</sup>에 불과한 것으로 미루어 표기율이 낮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다만 학술지의 경우 표기율에 있어서 1999년부터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의 학술지 심사시 총점 100점의 평가표에서 ISSN의 부여에 1점을 주고 있다. 따라서 학회에서는 절실한 필요에 의하여 신청을 하므로 대부분의 학회지가 ISSN을 표기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센터에서는 ISSN 오용에 대한 조사를 의도적으로 한 적은 없으나, ISSN을 배정받은 발행자에게 간행물이 발행되면 반드시 1부를 센터로 보낼 것을 의무로 하고 있으므로 현품을 받아서 번호의 올바른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제도적으로는 오용에 대한 1차 점검은 가능하나, 센터의 간행물 입수율이 지극히 저조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sup>101)</sup>

ISSN은 확정된 번호가 부여되기 때문에 인쇄상의 오류가 없는 한 번호 자체

---

99) 정기간행물현황에 따르면 '97년 이후신규 등록보다 폐간되는 잡지의 종수가 더 많다. '98년은 신규등록 1,117종에 폐간이 1,820종, '99년은 1,416종에 2,330종이 폐간하였다. 2000년은 1,295종 신규등록에 760종이 폐간하였는데 이것은 기준일자가 2000년 12월 15일로 되어 폐간 잡지 통계가 미수집된 때문으로 보인다.

100) 2000년 1년 동안 ISSN 1228-808X~999X(192종)와 ISSN 1599-0001~1482(149종)을 받은 일반잡지들이다.(국립중앙도서관, KOLIS 프로그램 -ISSN관리-ISSN간행물정보)

101) 최근에 ISSN을 배정받은 간행물의 입수율을 보면 학술지 배정의 1598은 9월말로 361개 배정에 97종 입수하여 입수율이 26.8%이고, 일반잡지 1599는 396개 배정에 108종 입수하여 역시 27.2%에 그쳤다. ISSN은 책을 발간하기전에 배정받기에 후속적인 조치가 어렵다는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낮은 입수율을 끌어올리려는 센터의 노력이 요구된다.

가 틀리는 일은 없다. 오류가 나타나는 것은 부가기호에 관련된 부분으로, 발행자가 발행 간기를 기준으로 스스로가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오류는 여기에서 나타난다. 발행간기에 관계없이 똑같은 부가기호를 계속 사용하거나 부가기호 없는 바코드를 인쇄하는 것이다.

그 외 자주 발생하는 오류는 표기위치의 잘못으로 ISBN과 같이 표지 뒷면에 인쇄하기도 한다. 이것은 표지에 화제가 될만한 기사제목을 인쇄하는 잡지의 특성으로 인해 발행자들이 의도적으로 뒷면에 인쇄하는 것이다.

#### 4.4.2.2. ISSN Compact의 활용

ISSN Compact는 국제ISSN센터에서 연 4회 갱신 발간하는 ISSN 간행물 정보를 담은 CD-ROM이다. 2000년 12월에 나온 ISSN Compact에는 978,660건의 데이터가 수록되어 있으며 1999년부터 윈도우 버전으로 발간되고 있다.

검색키는 ISSN, 모든 표제명, 키타이틀, 축약타이틀, 발행지, 발행자, 배포처 등에서부터 언어별구분(표제명, 본문, 발행자 등), (레코드의)지시자, URL, UDC(Universal Decimal Classification), DDC(Dewey Decimal Classification)등에 이르기까지 37가지로 가능하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orea Education &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이하 KERIS라 함)에서는 1999년 11월부터 2000년 6월까지 학술정보통합서비스시스템<sup>102)</sup>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각 회원사인 대학교로부터 받은 소장학술지에 대한 데이터들의 표제를 연결하는데 ISSN Compact를 활용하였다. 특히 간행물의 표제명이 바뀌면 새로운 ISSN이 부여됨에 따라 이전표제와 후속표제의 연결에는 ISSN이 키 역할을 하였으며, DB로 구축된 CD-ROM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해당 간행물의 선행잡지명과 후속잡지명의 검색이 가능하게 되었다. ISSN Compact는 외국간행물과는 달리 국내간행물에 대한 데이터의 경우 연간보고서나 일반잡지의 수록분이 많아서 포괄성이 떨어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

102) <http://www.riss4u.net/>

## 제5장 국제표준자료번호의 활용 제고 방안

제4장에서는 ISBN이 도서관계·출판계·서점 등의 유통업계에서 얼마나 인식되고 있으며, 업무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또 그에 따른 문제점들을 알아본 결과 컴퓨터 도입에 따른 오늘날의 정보화환경에서는 ISBN을 중심 키로 하여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업무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ISBN을 필수 키로 하는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관련업계들과 연결시키는 것은 ISBN의 활용도를 높이면서 출판산업의 정보화를 이룰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ISBN은 정보네트형 출판유통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기반이 되는 가장 기초적이고 필요불가결한 도구가 될 것이다.<sup>103)</sup>

본장에서는 ISBN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우선 제도적인 문제로서 ISBN 국가기구의 소관부처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그리고 ISBN을 사용함에 있어 가장 큰 구조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부가기호에 대한 개선안을 찾아보았다. 2002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시행 예정인 e-CIP 제도와 ISBN 제도는 그 운영에 있어서 연계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데이터의 온라인 서비스를 현재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 ISBN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센터에서 제안한 ISBN 도서정보시스템 구축(안)을 기초로해서 작성된 ISBN 통합 DB의 구축은 현재 출판관련 단체들이 모여 추진 중인 <출판유통정보센터>의 출판유통정보화 방안과도 연계가 되면 국가차원의 데이터관리시스템의 실현을 가져올 수 있게 될 것이다.

---

103) 이두영, 『정보네트워크형 출판유통시스템 연구』, 한국출판연구소, 1992, p.181.

## 5.1. 국제표준자료번호의 운영 활성화

### 5.1.1. 관리기구의 이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ISBN이 소개된 것은 1976년<sup>104)</sup>이었으나 1988년이 되어 서야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으로 표기함)에서 국제 ISBN 기구에 제도 운영에 관한 참고질의를 하는 등 ISBN 가입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당시 문교부에 소속되어 있던 국립중앙도서관에서도 출협과는 별도로 개정 도서관법시행령에 ‘국제표준자료번호 부여’ 조항을 신설하는 등 제도 도입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늘어나는 출판양과 정보화시대의 도래 등 출판계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가 ISBN 도입을 재촉하는 속에서 출협과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기구가 되기 위해 각축을 벌였다. 1990년 8월 출협의 양보로 국립중앙도서관이 우리나라의 ISBN 국가기구가 되었으며 그 당시 몇 개 남아 있지 않았던 두 자리의 국가번호, 즉 ‘89’를 받았다.

상업적인 필요에 의해 시작된 ISBN은 출판계와 유통업계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 속에 있을 뿐 아니라, 서지적인 정보요소로 도서관에서도 중요하게 인식됨에 따라 그 관리기구는 각 나라마다의 사정에 의해 그 소속처를 달리하고 있다.<sup>105)</sup>

ISBN 국가기구의 이관에 대한 출판계의 주장이 처음 제기된 것은 1996년 초 출협 회장에 출마한 나춘호 후보가 ISBN의 출협으로의 이관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부터였다. 이에 따라 1997년 5월 출협에서는 정식으로 ISBN 업무의 이관을 국립중앙도서관에 요청하였다. 동년 7월 이에 대한 보고를 문화부 장관

---

104) 제20차 IPA 총회 발표주제인 “출판업계와 도서관계에 있어서의 국제표준번호제도”가 『출판문화』 1976년 6월호에 수록되었다.

105) 『Publisher’s International ISBN Directory 1997-1998』에 의하면 142개 국가기구의 소속기관은 국립도서관: 61, 정부기관: 34, 국립대학도서관: 18, 출판관련단체: 11, 민간조직: 7, 출판협회: 3, 국제기구, 서적센터: 1, 기타: 1개 처로 되어있다.

에게 하였으며 여기에서는 출판계·서점계·도서관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 및 관련분야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의 이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sup>106)</sup>. 1998년 4월 한국문헌번호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로 표기함) 소위원회에서는 ISBN제도 발전에 초점을 두고 종합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이관문제를 포함하여 한국문헌번호의 전반적인 발전 과제에 대한 연구 용역을 의뢰하였다.

이 결과 용역보고서 『한국문헌번호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국립중앙도서관, 1998. 12) 제6장에서는 ISBN국가기구 이관을 포함하여 한국문헌번호제도의 발전방향을 다루고 있다.

출협으로의 ISBN 국가기구의 이관은 단순한 행정업무의 민간이양 차원이 아닌 ISBN/ISSN 제도의 근간을 바꿀 수 있는 일이다. 따라서 센터에서는 이에 대한 관련업계의 의견을 종합하고자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sup>107)</sup> 그 결과 출판·서점·도서관계의 응답을 종합해 보면 ‘변경이 필요하다’가 ‘현행대로가 좋다’는 의견보다 약간 우세(8.8%)하였다. 업계별로 보면 출판사는 현행(28.6%)과 변경(31.0%)이 백중세인데 비해, 서점업계에서는 단연 변경(44.4%)이 현행(9.5%)보다, 도서관계는 이와 반대로 현행(38.9%)이 변경(16.6%)보다 월등하게 높았다. 그러나 전체의 31.2%가 모르겠다고 응답하고, 무응답도 12.0%에 달하여 이 두 그룹을 합치면 43.2%가 되지만 이 결과를 가지고 ISBN의 출협이관을 찬성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ISBN 업무의 출협으로의 이관시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이 예상할 수 있다.<sup>108)</sup>

첫째, 출판 유통 정보화 및 서점 POS 도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도서정보 DB 구축을 시작한 일본의 書協에서 회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

106) 국립중앙도서관, 앞의 책, 1998, p.282.

107) 설문지조사는 용역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센터에서 1998년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 실시 한 것으로 본 논문 제4장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108) 국립중앙도서관, 위의 책, 1998, pp.291~294.

무료 개선을 해주는 것처럼 ISBN 업무와 출판사의 정보화 사업을 연계시켜 도서정보 DB, 네트워크 구축 등 정보화 기반 정비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보다 유연하게 제도가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출판 실적을 기준으로 발행자번호의 자릿수를 배정한다는 원칙에 있어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출판사나 서점에 대해 제도 활용에 대한 지도 활동이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이를 통해 출협의 위상제고와 함께 ISBN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셋째, 정제된 ISBN의 바코드 표시율을 높일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몇 년째 정제되어 있는 바코드 표시율은 관리기구의 변화라는 전환을 통해 새로운 발전의 시기를 맞을 수 있다.

넷째, ISBN이 도서관을 위한 제도라는 그릇된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다섯째, 출협을 위시한 출판계는 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ISBN 도입시 출협은 국가기구가 되기 위해 준비와 관련연구를 해 왔으며 지금은 바코드 제작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러나 ISBN 업무 이관에 따른 문제점도 다음과 같이 예상할 수 있다.

첫째, ISBN은 출협 단독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서점업계·도서관업계와 공동으로 운영해야 하므로 운영체제는 지금과 달라질 수 없다.

둘째, 한국문헌번호의 이원적 운영체제를 초래한다. ISBN의 이관은 ISSN과 별도 운영을 하게 됨으로써 서점에서 도서와 잡지를 같이 판매하고 있는 우리의 실정에서는 제도 발전의 장애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셋째, 국가자원의 낭비를 초래한다. 이원적 관리에 따른 비용의 이중 부담과 노하우의 분산을 초래할 것이다. 출협은 운영을 위한 별도의 비용이 필요하고 이 새로운 부담은 결국 회원사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이는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국민에게 새로운 부담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행정업무의 민간이양>원칙에도 어긋난다.

넷째, 출협의 ISBN 관리는 일반 상업용 도서 외의 정부기관·단체 등에서 발행하는 비상업적인 출판물에 대한 ISBN 표시를 등한히 할 소지가 크다.

다섯째, 출협은 바코드 제작 서비스로 출판사들에게 업무상의 간소화와 편의를 제공해 준다고 하나 바코드의 제작은 출판사 자의에 맡겨야 할 일이지 강제되어서는 안된다.

ISBN 관리기구의 이관문제가 계속 논의됨에 따라 센터에서는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보고서에 나타난 ISBN 업무의 출협 이관에 따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sup>109)</sup>

첫째, ISBN과 ISSN 제도를 분리 운영하게 된다. ISBN을 출협에서 운영함으로써 출판계의 지원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두 제도의 분리 운영은 효율적이지가 못하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함께 서점에서 도서와 잡지를 같이 취급하는 나라이다. 따라서 관리상의 문제뿐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둘째, ISBN이 출협의 위상제고에 이용될 수 있다. 출협의 재정은 회원사의 회비로 운영이 되므로 ISBN은 협회의 운영비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이 될 것이며 출판사에 대한 강제적인 가입권유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다. 2000년 말로 출협의 회원사는 925개 사로 문화부 등록 출판사수 16,059개의 5.7%이고 연 1종 이상의 신간도서를 발행한 실적이 있는 출판사 1,726개의 53.5%에 해당한다. 특히 한국문헌번호센터의 연간 운영비 1억 6천만원<sup>110)</sup>을 어려운 여건의 출협이 맡게 되면 ISBN을 수익사업이나 회원 확보 및 회비 징수 수단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셋째, 관련업계의 반발을 예상할 수 있는데 ISBN 업무와 바코드 제작업무를 일원화시킴으로써 바코드 필름 제작업체는 물론이고 서점계의 반발도 예상된

---

109)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표준도서(ISBN)업무 출협이관 문제 검토”공문, (1998. 10)

110) 순수운영비는 5천만원으로 발행처명감 등의 간행물 발간, 자료발송비, 국제회의 참석, ISSN 연회비 등의 명목이며 인건비는 사무관 1명에 담당직원 3명분을 더한 수치이다. (국립중앙도서관, “예산각목명세서” 2001. 1)

다. 또 출협과 함께 출판계의 양대 단체인 한국출판인회의의 반발도 당연히 예상할 수 있다.

넷째, 국립중앙도서관의 ISBN 도서정보 DB를 활용한 미납본자료 관리에 지장이 오게 되어 납본율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납본율이 80% 안팎인 지금의 시점에서는 미납본자료의 정보원으로서의 ISBN 도서정보는 중요하다.

다섯째, ISBN 업무의 민간이양은 공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또한 유통용 도서가 아닌 정부기관, 학교, 학회 등의 공간행물의 참여도가 낮아질 것이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ISBN 업무의 소관부처 문제는 처음 제도가 도입되던 때부터 논란의 여지가 많았다. 이관에 따른 장점의 이면에는 단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ISBN 국가기구가 국립중앙도서관이 되든, 출협이 되든 운영상의 어려움을 가지게 된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환경의 변화이다. 1990년 처음 ISBN을 도입하던 시기와 지식정보화시대라고 불리는 2000년대는 다르다. ISBN의 시행 초기에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조직력과 공익성, 막대한 예산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ISBN이 확장의 시기로 나아가 할 때가 되었다는 관점에서 관리기구의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전세계 많은 나라들의 국가 ISBN 기구가 국립도서관을 비롯한 정부기관에 속해 있지만 미국, 영국, 일본 등 출판 양이 많은 선진국가일수록 출판계가 주축이 된 별도의 기구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ISBN 관리기구의 문제는 당분간은 지금의 체제를 유지하겠지만 언젠가는 민간기구로 이양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시기는 주변 여건의 변화로 상당히 빨리 올 수도 있으므로 지금부터라도 이에 대한 준비와 검토를 해야 하겠다.

### 5.1.2. 부가기호의 검토

센터의 설문지 조사에서 서점에서의 부가기호 활용도는 ‘이용하고 있다’(19.1%), ‘이용하지 않는다’(23.8%), 무응답(57.1%)이었다. 도서관에서의 이용율은 ‘분류업무에 참고한 적이 있다’(36.1%), ‘전혀 참고한 적이 없다’(50.0%), 무응답(13.9%)으로 나타났다.<sup>111)</sup>

부가기호를 실제로 사용해야 하는 기관의 이용율이 19%, 36%에 그친 것은 그 효용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부가기호의 오용율이 전체 오용율에 있어서 ISBN 다음으로 높은 순위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을 한다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부가기호에 대한 검토는 부가기호에 가격사항을 표시하자는 주장에서부터 시작되었다. 1994년 심의회에서 나춘호 위원장의 건의로 검토를 하였으나 유보되었고, 김종수 위원이 1995년에 문제를 제기하고, 1998년에 가격표시를 다시 제안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를 하였다. 결론은 “원칙적으로 ISBN에 가격을 삽입한다. 그러나 한국문헌번호제도의 전반적인 발전방안을 연구하고 그 토대 위에서 편람을 개정하며 가격표시는 그 일환으로 시행한다”는 것이었다.<sup>112)</sup> 이에 따라 《한국문헌번호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는 다각적인 가격표시 방안을 기술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제1안 : 일원단위를 삭제한 5단위를 사용하여 가격표시를 하되 십만 단위까지 표시한다.

제2안 : 부가기호의 독자대상기호 중 예비부호인 ‘3’과 ‘8’을 사용하여 가격표시를 조정한다. ‘3’은 천원 수준까지의 가격을, ‘8’은 만원 수준의 가격을 표시한다.

제3안 : 예비부호 ‘3’과 ‘8’을 사용하여 가격표시를 조정하며 일원 단위는 삭제한다. ‘3’은 만원 수준의 가격을 표시하고 ‘8’은 십만원 수준까지의 가격을 표

111) 국립중앙도서관, 위의 책, 1998, pp.62~63.

112)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헌번호운영심의회 소위원회 결과보고서”, (1998. 5. 8)

시한다.

제4안 : 예비부호 '3' 만을 사용하여 백원 단위까지만 표시한다. 즉 십원 이하의 가격은 삭제하고 표시한다.

제5안 : 부가기호에 허용된 5자리를 그 이상으로 확장한다.

보고서에서는 5가지의 안 중에서 제4안을 채택하였다.

부가기호에 대한 검토는 먼저 그 존재 유무부터 시작해야 한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가기호도 정확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부가기호에 가격을 표시하는 문제는 극도의 혼란만을 불러올 뿐 출판사나 유통업체 어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출판사는 책의 가격이 바뀔 때마다 같은 ISBN에다 부가기호만을 바꾸어 표시해야 하고,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바코드로 인해 서점 등에서는 데이터를 재구축해야 한다. 사실 서점에서는 수시로 바뀔 수 있는 가격 변경이나 할인율은 전산 시스템의 프로그램 상에서 해결할 수 있다. 다양한 방식으로 묶음 판매를 하는 전집·총서·다권본이나 비도서자료는 각각의 경우가 다르므로 유통과정에 따라 복잡하고 다양한 바코드가 만들어져야 한다.

두번째로는 지금의 부가기호의 바코드 양식이 서점의 POS 시스템에서는 전연 판독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에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바코드 인식 프로그램들은 앞부분의 13자리 바코드만을 인식하므로 힘들게 만들어 붙인 부가기호 바코드를 무용지물로 만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부가기호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를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통업체의 POS 시스템 체제가 갖추어져야 하고,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의 개발이 우선 되어야 한다.

세 번째로는 센터에서 부가기호의 내용분류에 있어서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 현재 도서관의 분류체계인 한국십진분류법으로 되어 있는 내용분류표는 중소서점의 효율적인 자료배열과는 안 맞는 부분들이 많다. 예를 들면 공무원 수험서의 경우 별도의 성인용 수험서 항목이 없으므로 각개 분류가 되어 국어과목은 710(국어), 국사과목은 910(아시아사)로 분류되고, 시사상식은 000(총류)로

가게 되어 서점의 배열과는 동떨어진 결과를 보이고 있다.

부가기호의 기본 목적이 서점에서의 배가를 위하여 참고하기 위한 것이라면 내용분류표의 기본 골격은 그대로 가더라도 적용에 있어서는 센터 내의 세부적인 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대형서점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배가기준을 가지고 도서를 배열하고 있지만, 중소서점의 경우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중소서점의 현실에 맞는 내용분류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서점 경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독자들 또한 어느 서점을 가더라도 원하는 책에 대한 접근점이 같음으로 해서 이용의 편리함을 얻게 될 것이다.

ISSN의 부가기호에 있어서 최대의 문제가 되는 것은 일간지의 경우 주단위로 부가기호가 표시됨으로써 날짜의 구분이 안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주간지나 월간지는 연도 구분이 안 된다.

이것은 바코드의 표기에서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처음 ISSN이 생겼을 때의 목적이 도서관이나 학술단체에서 학술잡지나 전문적인 연속간행물의 정리·검색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업유통에서의 유용성을 생각하지 못한 때문이다. 발행년도 표시의 필요성이 없었으므로 식별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일반잡지의 경우도 비교적 생명이 길고 단행본적 성격의 전문적인 잡지들이 많이 발간되는 추세에 따라 과월호에 대한 수요가 생겨나게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두 가지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sup>113)</sup>

첫째, 현재의 부가기호 2자리를 5자리로 늘려서 발행년도를 표시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신문 등 일간지의 경우 일 표시도 가능해 진다.

두 번째, ISSN 체제는 그대로 남겨놓은 채 바코드 심벌 상에서 예비로 남겨놓은 두자리(현재 '00'으로 표시)를 사용하여 연도를 표시할 수 있다.

어느 방안을 채택하든지 일정기간의 과도기적 혼란은 겪을 수밖에 없으므로

---

113) 국립중앙도서관, 위의 책, 1998, p.66.

급변하는 우리 출판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 5.1.3. e-CIP와의 연계

보다 효율적인 도서정보의 구축방안으로 ISBN과 함께 CIP 제도를 들수 있는데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2002년도 시행 예정 사업으로 e-CIP 제도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CIP는 출판물에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목록데이터를 게재하여 모든 도서관의 목록 작성을 쉽게 할 뿐 아니라 정리업무를 표준화하고 성역화하는 제도이다. 1971년부터 미국에서 실시되어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이 제도는 출판계와 도서관의 협력 관계를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되며, 전산화가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미국에서는 앞으로 나올 책에 대한 예고를 미리 각 도서관에 통보하여 줄 수 있다. 자료 선택에도 더할 나위 없이 도움이 된다.<sup>114)</sup>

또한 CIP는 서적상과 도매상에 배포되어 그들에게도 신간서적을 선정, 구입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도서구매자와 독자가 출판물을 찾거나 확인하는데 이용된다.<sup>115)</sup>

CIP의 작성 대상 자료는 다음과 같다.<sup>116)</sup>

- 1) 판매용 도서
- 2) 정부간행물
- 3) 대학출판물
- 4) 번역서
- 5) 책자 형태의 약보 및 지도

---

114) 현규섭, “도서출판과 서지정보의 유통과정을 결합하기 위하여”, 『출판문화』, 272 (‘88. 6), pp.27~31.

115) 한국문헌번호센터, 『한국문헌번호편람』, 2판, 국립중앙도서관, 1996, p.137.

116) 이숙현, “CIP제도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출판문화』 424(2001. 3), p.11.

출판사에서 이 제도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우선 CIP 대상이 되는 출판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제출해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표제지 : 출판예정자료에 나타나는 그대로의 형태를 송부하며 출판사명이 나타나야 한다.

2) 판권지 : 역시 별도로 작성된 것이 아닌 출판예정자료의 내용 그대로를 송부한다.

3) 서문 : 내용 전부를 송부한다.

4) 목차 : 자료의 주제를 파악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5) 시리즈 정보 페이지 : 시리즈 정보가 책표지나 책등에 수록된 경우 해당 페이지를 송부한다.

6) 요약 : 주제를 개괄적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7) 기타 : 저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저자의 전기, 광고, 혹은 책의 자켓 사본을 송부한다.

자료 제출방법은 CIP 센터인 국립중앙도서관이 요구하는 양식으로 작성하여 전통적인 방법인 Fax 전송이나 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 또한 e-CIP라는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E-mail 등의 전자우편을 통하여 제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 1999년 이후 e-CIP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하기 시작하였는데 2년의 시행 결과 약 7%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sup>117)</sup>

e-CIP 제도 실시에 따른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관에서는 자료정리에 있어서 소요 시간, 인력, 비용의 대폭적인 절감을 가져오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표준 체제의 도입이 가능하다.

둘째, 출판사·서점·이용자들에게는 국립중앙도서관의 MARC 버전으로 된 신간정보목록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필요로 하는 자료의 사전 주문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발행 부수를 예측할 수 있다.

---

117) 이숙현, 위의 논문, 2001, p.13.

셋째, 도서관 운영 합리화에 따라 절감되는 비용을 도서 구매에 투입할 수 있다.

넷째, 출판물 유통정보 제공의 신속화로 이용자의 도서 구매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게 된다.

다섯째, 서점의 데이터 관리 시스템에 CIP 데이터의 활용이 가능하다.

e-CIP 제도를 실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판사의 협조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이를 실제적으로 사용하고, CIP 데이터를 공급해야 하는 출판사의 협조 의사가 없다면 이 제도는 성공할 수 없다.<sup>118)</sup>

출판사의 입장에서는 제출해야 할 자료가 7종이나 되면서, 인쇄 전에 모든 절차가 끝나야 하므로 시간적으로 급박하며, 납본과는 별도로 책을 1부 우송해야 하는 것 등을 문제점으로 들었다.

ISBN 제도에서도 출판사들은 센터에 부여대상 자료의 서지사항을 기재한 <도서번호통보서>를 보내야 한다. 통보서를 자료가 출판되기 일주일 전에 보내야 하는 것과 똑같은 이유로 e-CIP의 통보도 자료가 나오기 훨씬 전에 제출되어야 한다. ISBN이나 CIP는 모두 책에 인쇄되어서 나와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출판사 입장에서 보면 발간하려는 자료에 관한 데이터(목차·요약문 등을 포함한)를 같은 도서관에 두 번씩 보낸다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불편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도서관의 입장 또한 같은 절차의 업무를 두 개의 과에서 각각 해야하는 비합리적인 일이 발생하게 된다.<sup>119)</sup>

e-CIP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출판사와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야 하므로, 이미 10년이 넘게 출판사들과 연계기반을 구축해 놓은 ISBN 제도와의 연계는 필연적이라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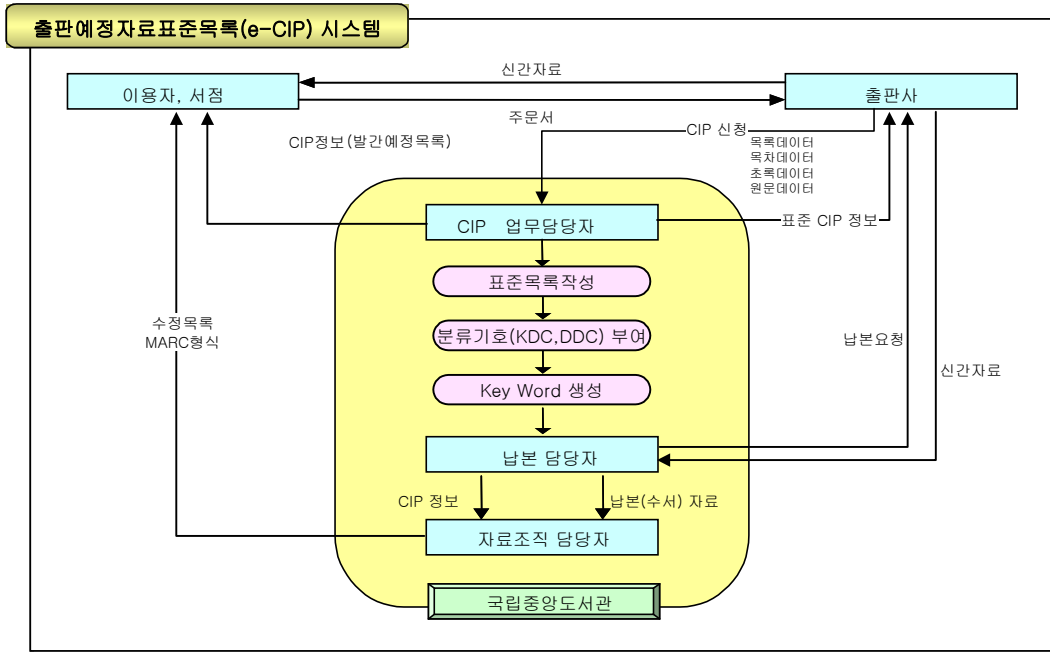
---

118) 국립중앙도서관과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출판예정도서 표준목록(CIP)제도 도입관련 세미나”(2001. 2. 21)를 공동 개최하였다. 여기에 토론자로 참석한 출판단체 인사들은 제도 시행 시 출판사들의 협조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임을 이야기하였다.

119) ISBN은 납본과 업무이며, e-CIP는 자료조직과 업무가 될 것이므로 제도가 시행되고 난 후의 그 둘의 통합은 한층 어려울 것이다. 이것은 전산 프로그램의 변경뿐 아니라 한 기관의 업무분장은 각 과간의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구상하고 있는 e-CIP의 업무 흐름도이다.

[그림5-1] e-CIP 업무 흐름도



(출처 :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자료표준목록(e-CIP) 사업계획서, 2001. 6)

여기에서 CIP 업무 담당자는 곧 ISBN 업무 담당자와 동일한 사람으로 볼 수 있다. 출판사에서는 ISBN과 CIP 신청을 한 번에 하고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표준 CIP 정보와 함께 ISBN을 통보함으로써 출판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보다 유기적이고 긴밀해 질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ISBN 제도가 구축해 놓은 기반을 발판으로 e-CIP가 운영된다면 양 제도는 서로 상승효과를 가져오게 됨으로써 보다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5.2. 관련정보의 온라인 서비스 확대

센터에서는 1996년 6월 24일부터 공중정보통신망인 천리안·하이텔·나우누리·BNK(주 한국출판정보통신)를 통해 ISBN 도서정보와 발행자정보를 이용자에게 서비스해 오고 있다. 주2회 갱신데이터를 PC 통신망에 제공해 오고 있으나 이용율은 상당히 낮을 것으로 보인다.<sup>120)</sup>

ISBN 도서정보를 POS 시스템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서점에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다고는 하나, 여기에는 양적으로 부족한 데이터의 숫자와 함께 데이터가 부정확하다는 질적인 문제가 장해 요인으로 작용한다. 책의 내용이 처음 통보한 것과 달라지면 <도서번호 정정통보서>를 보내도록 되어 있고, 센터에서는 이것을 받아 원래의 데이터를 수정한다. 정정 내용의 대부분은 가격이나 출판일자 등이지만, 간혹 서명이나 저자명이 바뀌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PC 통신을 통한 데이터 전송에 있어서는 프로그램 기술상의 문제로 수정 데이터의 전송이 불가능하다. 원천적으로 데이터의 오류 수치가 상당히 높을 것이므로 실제 이들 데이터를 그대로 받아서 사용하는 서점은 없을 것이다.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인터넷 인구는 PC 통신 이용율 저하에 있어서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주)데이콤과 하이텔에 대한 ISBN 도서정보 제공을 중단하기 위해 협약의 해지를 요청한 상태이다.<sup>121)</sup> 조만간 PC 통신을 통한 데이터의 제공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2001년 10월 18일자 A29면)에 의하면 2001년 9월말로 국내 인터넷 인구는 2,4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이는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서 전국3,854

---

120) 정부전산정보관리에서 1993년 6월부터 서비스해 오던 <PC통신 열린 정부>가 2001년 9월 30일부터 중단되었다. 이는 각기관의 홈페이지 제공과 업무의 부담으로 인한 것이지만 가장 큰 원인은 PC 통신의 이용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정부전산정보관리소장, “전자정보 포털사이트 개설에 따른 PC통신 <열린정부> 서비스중단 통보”공문, 2001. 8. 14)

121)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도서정보 제공 협약 해지 요청” 공문, (2001. 7. 12)

가구 1만 978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이용실태를 표본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말 1,904만 명에 비해 496만 명이 늘어난 것이다. 인터넷 이용율은 56%로 추정하고 있다<sup>122)</sup>. 1990년대 말부터 급속하게 퍼지기 시작한 인터넷은 그 이용의 편리성과 다양성 및 신속성으로 인하여 이제는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게 사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인터넷 인구의 급증에 따른 PC 통신 인구의 격감은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ISBN 발행자와 도서정보의 검색요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국립중앙도서관(주)디지털조선일보사와 ISBN 도서정보 제공을 위한 협약을 맺고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서비스를 하게 되었다. 2000년 4월부터는 신규데이터를 일단위로 E-mail로 전송하기로 하고 소급데이터(1993~2000. 3)는 디스켓으로 제공하였다. 검색은 디지털조선일보<sup>123)</sup>의 포털사이트인 도서전문 웹진 “Books Chosun”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http://www.nl.go.kr>)가 2000년 12월 1일자로 전면적인 개편을 함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ISBN/ISSN 제도 운영에도 커다란 변화가 왔다.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에서 한국문헌번호센터(ISBN/ISSN)로 들어가서 발행자들은 다음과 같은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 ISBN/ISSN의 가입이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되었고 접수여부의 확인도 할 수 있다.

2) ISBN <도서번호통보서>를 컴퓨터 화면상에서 직접 입력하여 센터로 보낼 수 있다. 입력 시 해당 출판사의 발행자정보가 확인이 되며 체크기호를 자동으로 점검해주는 기능이 추가되어 있어 체크기호의 오용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역시 접수 확인을 할 수 있다.

3) 기가입 발행자에 대한 정보검색이 가능하다. 발행자정보에는 발행자명, 주소, 출판 분야, 대표자명, 연락처와 함께 E-mail 주소와 홈페이지가 링크되어

---

122) <http://www.stat.nic.or.kr>

123) <http://www.chosun.com>

있어 바로 접속할 수 있다.

4) 기재정 도서번호에 대한 검색이 가능하다. 검색조건은 서명, 저자, 발행자, ISBN이며 출판예정일과 주제에 의한 분류별·독자대상별로 지정할 수 있다. 자료는 검색 당일을 기준으로 출판예정 6개월 이전 자료부터 볼 수 있다.

5) 발행자는 자사가 센터에 보낸 통보서 내용을 일괄적으로 볼 수 있다. <등재부 검색>을 하면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파일 상태로 내려 받기하여 이용할 수 있다.

6) 한국문헌번호의 구조, 부여방법 등이 수록된 《한국문헌번호편람》을 내려 받아 업무에 참고할 수 있다.

7) 인쇄본으로 나오던 《발행처명감》을 내려 받을 수 있으며 데이터의 내용은 연4회 이상 갱신된다.

인터넷을 통한 ISBN/ISSN 정보의 제공과 이용은 발행자 뿐 아니라 센터 업무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개선을 가져왔다

첫째, <도서번호통보서>를 출판사가 직접 컴퓨터에 입력하면 이를 받아서 국립중앙도서관의 통합시스템인 KOLIS에 그대로 들어가게 됨에 따라 센터의 담당자는 입력 과정 없이 데이터의 점검만 하면 되므로 업무 효율성의 증대를 가져왔다.

다음은 도서번호 접수에 대한 온라인 접수 비율 현황이다.

#### <표5-1> 도서정보 온라인 접수 현황

2001년 월	1	2	3	4	5	6	7	8	9	10
총접수	2,107	3,078	3,213	3,184	3,499	2,656	2,968	3,067	2,419	2,575
온라인접수	1	817	1,363	923	1,486	1,256	989	1,463	1,019	1,029
비율(%)	0.04	26.5	42.4	28.9	42.4	47.3	33.3	47.7	42.1	39.9

(출처 :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헌번호센터 업무현황, 2001. 11)

\* 1월에 시험 가동을 시작하여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발행자번호의 온라인 신청은 도서번호보다도 더 높은 증가율을 보여 준다.

<표5-2> 발행자번호 온라인 접수 현황

2001년 월	1	2	3	4	5	6	7	8	9	10
총접수	90	130	121	121	128	117	134	114	101	109
온라인접수	31	45	41	53	57	54	68	67	34	70
비율(%)	34.4	34.6	33.9	52.0	42.4	46.0	50.7	58.8	33.7	64.2

(출처 :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헌번호센터 업무현황, 2001. 11)

\* 총접수는 온라인과 FAX으로 신청된 것으로 직접 방문하여 작성한 경우는 제외되었다.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온라인 접수는 짧은 기간 내에 상당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센터에서는 신규 출판사들의 교육을 통하여 <도서번호통보서>를 온라인으로 보내도록 요청함으로써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다.

둘째, 센터의 발행자정보 점검이 수시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1998년 <ISBN 사용자 설명회> 개최 시 발송한 참가공문의 반송율이 25% 이상이었다.<sup>124)</sup> 출판사는 주소가 바뀌면 센터에 알리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 통보하는 곳은 아직도 많지 않다. 이를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주소를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으나 이제 <도서번호통보서> 입력 시 반드시 자사의 발행자정보를 확인해야 하게 됨에 따라 출판사 주소의 업데이트가 빨라지게 되었다.

셋째, 출판사의 입장에서는 <등재부 검색>을 통해 과거에 센터로 보낸 통보서의 내역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되어 등재부의 별도 관리가 필요 없게 되었다.

124) 이것은 ISBN을 받은 발행자들에 대해 제도를 도입한 후로 한번도 주소 정비가 없었기 때문이다. 센터에서는 반송된 출판사에 대해서는 도서관의 통합정보 프로그램에서 우편번호를 '999'로 처리하여 주소 레이블이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그후의 반송율은 5% 미만으로 낮아졌다.

넷째, 유통업체도 언제나 최신의 수정된 발행자 주소를 확인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도서정보의 확인과 함께 2001년 도서관정보화사업으로 추진예정인 <출판정보활용시스템>이 개발되면 도서정보 DB에 구축된 데이터를 POS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섯째, ISBN 발행자번호의 배정 등에 있어서 모든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업무의 공정성과 함께 발행자의 신뢰성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과거에는 빨라야 3~4일이 지나야 알 수 있었던 발행자번호나 통보서의 이상유무를 빠르면 1~2시간 안에 자사의 컴퓨터를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ISBN/ISSN의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는 제도 발전에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인 일로, 다음과 같이 서비스를 확대한다면 더 한층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현재 ISBN 도서정보의 경우 출판예정일로부터 6개월 분 만을 볼 수 있게 되어 있고, 데이터의 다운로드에 아예 불가능하다. ISBN이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출판유통시스템에서의 사용이 관건인 만큼, 구축된 데이터 모두를 보여주고,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ISBN 도서정보는 필요로 하는 곳에서는 언제라도 받을 수 있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용 정보가 될 때 그 가치가 있는 것이다.

둘째, <도서번호통보서>를 인터넷으로 받으면서 그 결과에 대한 회신(오용의 경우)은 전화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을 통보서 내용이 도서정보 DB에 입력됨과 동시에 바로 출판사로 자동 이메일 회신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인터넷은 일방이 아닌 양방의 매체로 작용할 때 한층 효과적이다.

셋째, 센터에서는 ISBN 체크기호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ISBN 오용을 줄였

는데 이제는 바코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미 번들 프로그램이 된 바코드 생성 프로그램을 인터넷상에 올리는 방안도 관련업계와 함께 검토해 볼 만 하다.

### 5.3. ISBN 도서정보의 활용

1999년도 한국문헌번호운영심의회 총회에서는 ISBN을 주축으로 하는 DB 구축방안을 검토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1999년 8월부터 11월까지 전문가들이 모여 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물로 <ISBN Data Base 구축사업 실행계획(안)>을 2000년도 총회에 제출하였다.

여기서는 위의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ISBN 도서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ISBN 통합 DB>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sup>12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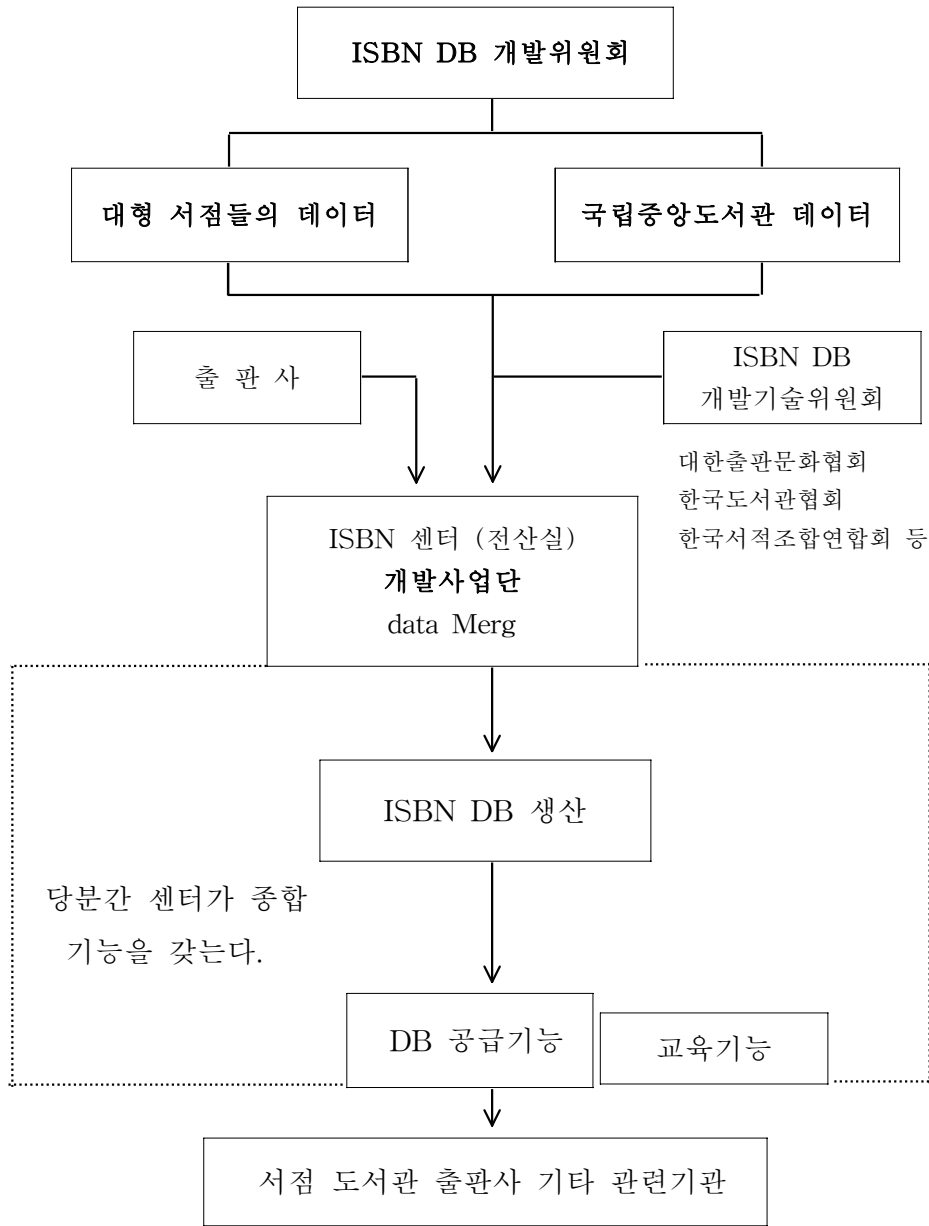
#### 5.3.1. ISBN 통합 DB의 개념

한국문헌번호센터에서는 ISBN을 중심 키로 하는 ISBN 도서정보를 구축하고 있으며, 서점 등 유통업체들도 판매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다. 또 출판사들 중 일부는 자사의 발간자료를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느 기관의 데이터도 완전하지 못할 뿐더러 똑같은 자료에 대한 데이터의 구축을 도서관·서점·출판계가 각각 함으로써 비경제적이고 비효율적이다.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센터의 ISBN 도서정보 DB를 중심으로 하고 대형서점의 DB를 보완하여 출판사·서점·도서관 등 관련업계 모두가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통합 DB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며 그 기본 개념도는 다음과 같다.

---

125) 한국문헌번호운영심의회, “ISBN Data Base 구축사업 실행계획(안)”보고서, 1999.  
12

[그림5-2] ISBN 통합 DB의 기본 개념도



(출처 : 한국문헌번호심의회, "ISBN Data Ba구축사업 실행계획(안)", 2000)

여기서 통합 DB를 구성하는 원시 데이터(Souce data)의 생산과 이들의 결합 과정은 다음과 같다.

- 1) 원시 데이터는 국립중앙도서관의 ISBN 도서정보(미발간자료), 납본 데이터, 교보·영풍문고의 반입정보가 된다.
- 2) 원시데이터는 UMARC Format으로 변환되고,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되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편성된다.
- 3) ISBN DB는 인터넷으로 출판사·서점·도서관에 공급한다.
- 4) 출력받은 데이터는 공익적 차원에서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된다.

데이터의 흐름은 아래와 같다.

[그림5-3] 원시데이터의 흐름

원시데이터	변 환	통 합	가 공	공 급
ISBN 도서 정보(출판사) 납본데이터 교보문고 영풍문고	UMARC로 변환	ISBN DB 서지정보 저장	검색 영업정보	인터넷으로 제공

(출처 : 한국문헌번호심의회, “ISBN Data Base 구축사업 실행계획(안)”, 2000)

### 5.3.2. ISBN 통합 DB의 개발 방향

ISBN을 주축으로 하는 통합 DB는 출판과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 얻을 수 있는 최신정보이다. 이때의 출판정보는 유통도서와 함께 정부간행물·학술서적 등의 비영리 간행물이 포함된 포괄적인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ISBN을 기반으로 한 도서정보 DB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요청되는 출판물 정보 시스템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ISBN DB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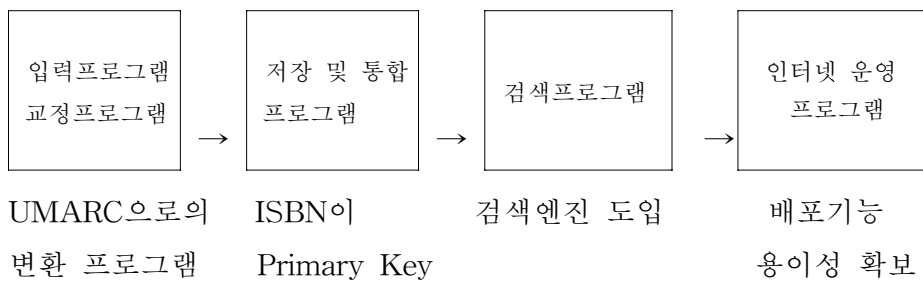
- 1) 우리나라의 출판물정보 유통체제의 기반을 조성하는 현실적이며 실행 가능한 시스템이 된다.
- 2) 출판사의 정보전산화를 촉진시킬 것이다.
- 3) 도서관의 출판물 주문 시스템이 온라인으로 가동된다.
- 4) 서점의 출판물 유통 현대화에 기여한다.
- 5) 국립중앙도서관의 납본 업무를 효율화시킬 수 있다.
- 6) 국가의 공익적 사업으로 출판물정보화의 기반이 조성됨으로써 문화적 기능을 진작시킨다.
- 7) 누구라도 최신의 출판물 정보를 자유롭고 쉽게 접근할 수 있다.

통합 DB를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과 개발 방향은 다음과 같다.

- 1) 입력/저장/교정/검색이 완벽하게 작동되는 ISBN 통합 DB를 개발해야 한다.
- 2) 프로그램은 변화된 정보환경을 반영하고 최신의 기술을 구사한 새로운 기법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 3) 인터넷을 통한 프로그램은 필수적으로 부가되어야 한다.

프로그램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그림5-4] ISBN 통합 DB의 개요



(출처 : 한국문헌번호심의회, "ISBN Data Base 구축사업 실행계획(안)",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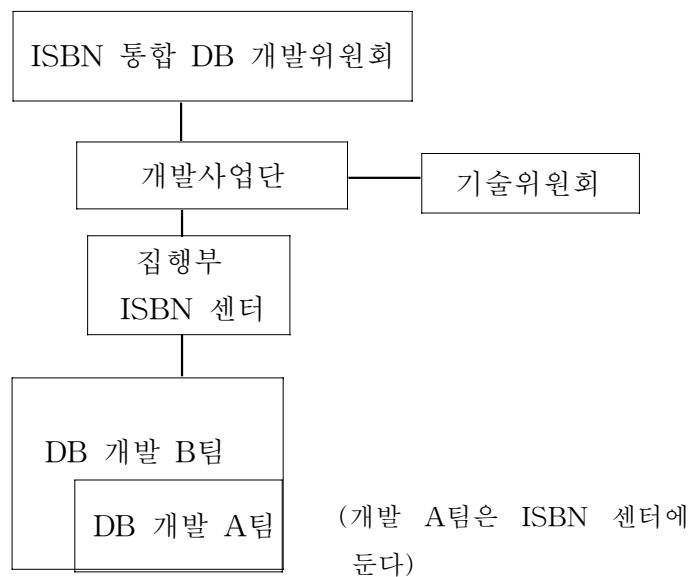
ISBN 통합 DB의 개발을 위하여 <ISBN 통합 DB 개발위원회>(가칭)를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1) 위원회는 국립중앙도서관장, 대한출판문화협회장, 한국출판인회의장, 한국서점조합연합회장, 한국도서관협회장, 교보문고 대표이사, 영풍문고 대표이사로 구성(이하 위원회라 한다)됨으로써 범출판계를 망라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이 된다.

2) 위원회 산하에 개발사업단을 둬으로써 사업단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실행할 수 있도록 기획을 입안하고 실시되고 있는 제반사항들을 서로 협조할 수 있게 하고 감독하는 기능을 가진다.

3) 집행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위원회를 둔다. 기술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단, 한국문헌번호운영심의회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그림5-5] 위원회 및 개발사업단 구성도



(출처 : 한국문헌번호심의회, “ISBN Data Base 구축사업 실행계획(안)”, 2000)

### 5.3.3. 공동 레코드 편성을 위한 포맷 표준화안

출판계·서점계·도서관계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ISBN 통합 DB 레코드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 1) 관련업계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 레코드 구조안을 제정하고 이를 각계에서 공히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 2) 표준 레코드 구조안의 제정 원칙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① 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KORMARC Format을 기본 구조로 한다.
  - ② 출판계와 서점계의 필수적인 데이터를 추출하여 KORMARC의 밀도를 조율한다.
  - ③ 서점계와 출판계에서는 별도로 필요한 영업용 데이터를 추가한다.
- 3) 표준안은 공청회를 거쳐 공론화하여 정한다.

표준안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그림5-6] 통합도서정보 자동화 목록 표준 포맷(Unifield MARC Record Format) 시안

TAG 필드구분	내 용 과 식 별 자	자동 색인
001 관리번호	\$aISBN%(ISBN을 Master field의 키로 삼는다)	O
020 ISBN	001필드의 것을 그대로 이동\$x오용ISBN%	O
021 ISSN	\$aISSN%(ISBN과 함께 사용된 경우에 한함)	
056 분류번호	\$aKDC%(반복사용 가능)	
070	\$a서점에서 사용될 분류기호%(ISBN 부가기호)	
245 서명사항	\$a본서명\$b부서명\$c잡제%(서명과 부서명은 검색 대상이고 잡제는 기록대상임)	O
246 저자표시	\$d제1저자명\$e제2저자명%(이하 \$e반복사용)	O
247 권차표시	\$n권차\$p권차서명\$d제1저자\$e제2저자%	
250 판차사항	\$n판차\$d제1저자\$e제2저자(해당판의 편찬자)%	
260 발행사항	\$a발행지\$b발행사\$c발행년%	O
300 물리적 형태	\$a면수\$b삽도표시\$c크기\$d딸림자료%	
350 가격	\$a가격\$b개정가격\$c개정일%	
440 총서명	\$a총서명\$v권차표시%(검색대상이 될 경우)	O
490 총서명	\$a총서명%(검색대상이 아닌 단순한 기록)	
500 내용주기	\$a내용주기%	
507 원서명,저자명	\$a원서명\$t원저자명%	O
670	\$a서점용 주제어%	
745 서명부출	\$a부출되는 서명%	O
746 저자명부출	\$a부출되는 저자명%	O
845 총서명부출	\$a부출되는 총서명%	O
900 서점·출판사 영업정보	공급처 재고정보 처리분야	

(출처 : 한국문헌번호심의회, “ISBN Data Base 구축사업 실행계획(안)”, 2000)

#### 5.3.4. ISBN 통합 DB의 발전방안

1997년 IMF 때 대형부도를 낸 서적도매상들이 거래도서목록을 만드는 데만 수십억원이 투입되었다고 할 만큼 우리의 출판계는 기본적인 출판정보마저도 표준화되어 있지 못하다.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도서목록을 작성하고, 유통업체 또한 그들 각각 나름의 판매도서목록을 만들어 오고 있다. 이러한 중복투자를 막고 사이버시대의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원하는 독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표준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표준도서목록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ISBN 통합 DB의 구축은 도서관·서점(유통업체)·출판사에서 반드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출판사의 데이터(미발간도서, 출판예정자료)가 국립중앙도서관의 한국문헌번호센터에 들어가서 납본된 자료들의 데이터들과 상호검색을 통해 완전데이터로 바뀌고, 여기에 미납본된 자료에 대해서는 대형서점(교보문고·영풍문고)의 데이터가 추가됨으로써 완전한 통합 DB로 구축될 수 있다. 이 통합 DB가 인터넷을 통해 도서관, 서점, 출판사, 독자 누구라도 원하는 곳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그림5-6]에서 제시한 표준포맷 시안을 참고로 하여 필수데이터들에 대한 기본 포맷을 정하는 것은 출판사·서점·도서관의 삼자가 함께 결정을 해야 할 것이며 그외의 포맷들은 필요에 따라 추가할 수도, 뺄 수도 있는 것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통합 DB가 이루어지면 그동안 출판계의 숙원이었던 유통도서목록이나 출판예정목록 등을 발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으며 또한 데이터의 중복된 입력으로 인한 시간적·경제적인 손실을 방지할 수 있으면서 목록의 표준화를 이루게 될 수 있다. 이제 통합 DB의 제공은 출판산업의 정보화에 있어서 선택이 아닌 필수의 문제인 것이다.

## 5.4. 디지털시대의 국제표준자료번호

인터넷의 급격한 발달과 이에 따른 출판환경의 변화는 ISBN/ISSN의 제도운영에 있어서도 그에 따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전자책(e-Book)의 출현이 대표적인 예로써 국내에서만도 2001년 2월말로 500여 출판사가 10여개 전자책 업체와 계약을 맺고 12,800종의 전자책이 서비스되고 있다. 주요업체들이 밝힌 콘텐츠 생산계획에 따르면 2001년도에 7만 종에 가까운 전자책이 서비스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sup>126)</sup>

ISBN은 2000년에 개정된 《User Manual》에 전자출판물에 대한 번호부여를 명시함으로써 우선은 번호부여의 근거를 마련하였다.<sup>127)</sup>

이로써 e-Book에 대한 번호부여가 가능하게 되었지만<sup>128)</sup>, 실질적으로 번호를 부여하기 시작하면 새로운 번호를 주어야 하는 개정의 의미를 어느 선까지 해야 할 것이냐의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ISBN국제기구에서는 ISBN의 표준안인 ISO 2108의 개정작업을 하기 위하여 회원국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 개정사유로써 전자정보시대를 맞이하여 ISBN 시스템에서 많은 숫자가 수용될 수 있도록 용량을 증가시키고, ISBN 부여와 관련하여는 메타데이터의 구체적인 사용문제, 디지털 파일로 생산된 특정형태의 단행본자료에 ISBN 부여여부와 그 방법, ISBN 부여자와 시스템관리자의 구체적인 명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ISO 2108 개정작업 일정은 2004년 10월까지 최종안을 작성하여 2005년 1월에는 ISO 2108 제4판을 출간할 예정이다.<sup>129)</sup>

---

126) 백원근, “전자책(e-Book)현황과 전망”, 『e-commerce』, 2001년 3월호, p.38.

127) 개정판에 새롭게 추가된 ‘제6장 전자출판물과 ISBN’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내용이 수시로 변하는 온라인출판물의 경우 완결되거나 최종결과물에 대한 번호부여는 당연한 것이며, 개정의 의미(다른 번호의 부여)를 내용의 명백한 변화와 구조적인 변화로 규정하고 있다.(한국문헌번호센터, 앞의책, 2000, p.48.)

128) 센터에는 2000년 하반기부터 전자책에 ISBN 부여가 가능한지를 묻는 문의가 오기 시작하여, 2001년도에는 소설류를 중심으로 번호가 배정되었다.

129) <http://www.nlc-bnc.ca/iso/tc46sc9/index.htm>

ISSN은 이미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웹진에 대해 번호를 부여해 오고 있으며<sup>130)</sup> 현재 추진중인 《ISDS Manual》 개정작업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될 것으로 보인다.

---

130) 2000년말로 ISSN을 받은 간행물의 출판형태별로 본 978,660건에서 Online형태가 8,272건으로 되어 있다.(ISSN Compact 2000. Dec.)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말로 ISSN을 받은 웹진은 모두 11종이다.

## 제6장 결 론

오늘날의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출판산업계에 대한 독자들의 요구는 점점 복잡화·다양화되어 가고 여기에 개별화 경향과 함께 신속성까지 요구하게 되었다. 따라서 독자가 필요로 하는 출판물과 이에 대한 정보를 필요한 만큼, 원하는 시기에 제공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게 되었다.

현재 우리의 출판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도서의 종수는 약 30만 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렇게 방대한 양의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산화가 필수조건이다. 또 출판정보의 전산화 작업에서 기본전제는 도서정보의 표준화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부터 ISBN/ISSN을 도입하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외형적으로는 표준화된 도서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제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국제표준자료번호의 활용현황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ISBN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서 관리기구에 대한 재검토를 통하여 민간단체로의 이관을 준비해야 한다.

ISBN의 도입 초기에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정부의 강력한 행정 지원과 막대한 운영자금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실적 출판사들이 발행자번호를 배정받았고, 교보문고 납품도서의 80% 이상이 ISBN을 표기하고 있으므로 제도는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상의 표기율 향상에는 한계에 이른 것으로 보여지므로, 관리기구 운영 주체의 전환을 통해 제도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유통에 필수적인 바코드의 부착은 도서관 업무에 있어서 별다른 용도를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유통업체의 POS

시스템에서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ISBN 관리기구를 별도의 출판관련단체가 맡는다면 ISBN과 바코드 표기는 함께 그 비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단 이 경우 정부간행물 등의 비매품자료는 국립도서관이 시행할 예정인 e-CIP 제도를 통하여 ISBN 표기를 의무화함으로써 효율화시킬 수 있다.

둘째, 오용율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ISBN 부가기호와 세트번호 부여에 대하여 그 존재 여부를 포함한 검토가 필요하다.

부가기호는 일부 대형서점을 제외하더라도 중소형서점들이 이것을 그대로 적용시켜 매장 내 도서 배치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독자들도 어느 서점을 가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책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현재 서점의 POS 시스템에서 부가기호가 전연 판독이 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한다. 한편으로는 부가기호의 폐지를 점진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국립중앙도서관에서 2002년에 시행할 e-CIP와 ISBN은 연관된 체제로 정비되어야 한다.

e-CIP 제도의 성공여부는 출판사들의 협조에 달려 있는 만큼 e-CIP와 ISBN의 접수 창구를 하나로 통일하여야 한다. 제도를 운영한 지 10년이 되는 ISBN의 기반 위에서 e-CIP의 시행은 e-CIP의 성공을 위한 초석이 될 뿐 아니라 ISBN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제도의 통합에 따른 단일 창구는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하고 사용해야 하는 출판사의 노고를 덜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도서관 업무의 효율성도 가져올 수 있다.

양제도는 또한 궁극적으로는 현재 출판관련단체들이 추진중인 <출판유통현대화사업>이라는 커다란 사업 구조속에서 같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인터넷을 통한 ISBN 정보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2001년 1월부터 시작한 온라인 접수는 이미 총접수의 50%를 넘고 있는 등 앞으로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센터에서는 출판사에서 보낸 통보서 내용이 바로 ISBN 도서정보 DB로 구축됨에 따라 업무의 간소화를 통해 능률이 향상되었으며, 출판사, 서점 관계자, 그리고 독자들은 ISBN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게 되었다.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를 얻고 보낼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가 신뢰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데이터에 대한 업데이트 작업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ISBN 도서정보 DB의 내려받기가 가능하게 하여 신규 서점의 경우 별도의 데이터 구축 없이 소장자료에 대한 정보구축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것을 통해 서점의 POS 시스템 도입에 있어서 커다란 진전을 가져올 수 있다.

아울러 출판사에서 통보된 데이터의 오용여부의 전자우편을 통한 전송과 바코드 프로그램의 무료 공개를 검토해야 한다.

다섯째, ISBN을 주 키로 하는 ISBN 통합 DB의 구축이 정착되어야 한다.

센터의 ISBN 도서정보를 중심으로 도서관·서점·출판사가 함께 데이터를 생성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지난 날 우리 출판산업이 안고 있었던 비경제적이고 비효율적인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ISBN 통합 DB는 이미 센터에 구축된 ISBN 도서정보 20만 건을 근간으로 하여 여기에 교보·영풍문고의 데이터를 합치게 된다. 이때 자료 일치검색의 주 키는 ISBN이 된다.

이러한 ISBN 통합 DB 구축으로 우리나라 출판계의 오랜 숙원인 출판도서목록은 물론이고 출판예정도서목록까지도 나올 날이 멀지 않을 것이다.

여섯째, ISSN에 대한 이원적 관리를 검토해야 한다.

현재의 ISSN 번호체계에서 부가기호에 대한 검토도 시급하지만, 그와 함께 유통잡지에는 ISSN과는 별도의 코드 체계를 적용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일본과 같이 학술지 관리는 국립도서관에서 하고 일반잡지는 유통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채택하여 별도의 관리체계를 적용시킬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일곱째, ISBN/ISSN의 활성화의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를 들 수 있다.

전자출판물의 경우 교보문고 납품도서에서 볼 수 있듯이 100%의 ISBN 표기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문화관광부가 '99년 4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10%의 면세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면세조건으로 국립중앙도서관에의 납본과 국제표준자료번호의 부여가 필수사항으로 들어가 있다. ISBN 표기를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정부의 면세정책이라고 하겠다. 이것은 학술진흥재단의 학술지 평가에서 ISSN이 점수화되면서 각종 학술단체로부터의 ISSN 배정요구가 늘어난 것으로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센터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센터는 ISBN/ISSN의 실질적인 관리처로서 제도 운영에 있어서 촉매의 역할도, 억제제 역할도 할 수 있다.

올바른 ISBN 사용을 목적으로 현재 1년에 한 번 출판사를 대상으로 하는 ISBN 사용자 설명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ISBN의 적용 분야가 다른 도서관이나 서점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교육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출판사의 경우도 이해 수준에 따라 강의 내용을 달리해야 효과적일 것이다.

보다 적극적으로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 ISBN의 관리가 어려운 일인출판사나

연5종 이하를 발간하는 소규모 출판사에게는 센터에서 도서번호를 일괄적으로 부여하고 관리해주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유연한 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며 이 경우 영국과 같이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 방안을 도입해도 좋을 것이다.

더불어 센터의 업무담당자는 국립중앙도서관의 보직연한(대개 3년)과는 별도로 순환을 하여 업무의 공백이 생기거나 추진사업의 중단이나 변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업무 희망자를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것도 업무의 효율화를 가져올 수 있다.

센터 담당자들이 우리나라 출판산업과 출판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업무를 해나갈 때 ISBN/ISSN 제도는 보다 발전적으로 나갈 것이다.

결국 출판유통 현대화를 위해서는 유통정보 DB가 구축되어 활용되어야 하며, 유통정보 DB에서 ISBN/ISSN이 중심 키로 작용하게 됨으로 표준번호의 중요성이 새삼 강조된다. ISBN/ISSN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번호가 정확하게 사용되어야 하기에 번호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마인드는 기본 전제가 된다. 출판사는 제도의 실질적인 작성자이면서 통합 DB에 있어서는 원시 데이터의 작성자로, 도서관은 제도의 관리기구로서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중간자 역할을 해야하고, 서점 등의 유통업체는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제도 활성화에 결정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출판사·유통업체·도서관 삼자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의 인프라 구축은 보다 굳건해질 것이다.

## - 참고 문헌 -

### < 단행본 >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규정집』, 2001  
\_\_\_\_\_, 『한국문헌자동화 목록형식 - 단행본』, 1993  
\_\_\_\_\_, 『한국문헌번호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국립중앙도서관  
1998
- 국립중앙도서관 : 대한출판문화협회, 『ISBN적용 POS시스템 운영사례 발표회  
자료집』, 1995
- 국립중앙도서관 : 한국과학기술원, 『ISDS 전문가 초청 강연회』 (1991. 12. 11~  
12. 14)
- 대한출판문화협회, 『2001 韓國出版年鑑』, 2001  
\_\_\_\_\_, 『ISBN·POS제도 토론회』, 1991
- 문화관광부, 『정기간행물현황 : 등록일람표 2000. 12』, 2000  
\_\_\_\_\_, 『출판유통정보화 추진방향』, 1998  
\_\_\_\_\_, 『출판정책 자료집』, 1997  
\_\_\_\_\_, 『한국출판유통현대화 방안 연구』, 1989  
\_\_\_\_\_, 『2000 문화산업백서』, 2000
- 한국문헌번호센터, 『한국문헌번호편람 ISBN/ISSN』, 제2판, 국립중앙도서관,  
1996  
\_\_\_\_\_, 『한국문헌번호편람 ISBN/ISSN』, 제4판, 국립중앙도서관,  
2000  
\_\_\_\_\_, 『국제연속간행물데이터시스템 편람 : ISDS Manual』, 국립  
중앙도서관, 1993

한국문헌번호센터, 『ISBN 배정 발행처 설명회 자료집』, 국립중앙도서관,  
1998~2001

김중수, 『유럽도서유통에 관한 고찰』, 한국출판연구소, 1997

윤청강 외, 『한국출판산업 실태조사』, 한국출판연구소, 2000

이두영, 『정보네트워크형 출판유통시스템연구』, 한국출판연구소, 1992

전원재 외, 『도서유통체계 및 관리개선연구』, 한국출판연구소, 1989

### <연구논문>

백원근, “전자책(e-Book) 현황과 전망”, 『e-commerce』, 2001년 3월호

이두영, “ISBN·POS제 도입의 필요성과 그 준비작업”, 『출판문화』 287(‘89. 9)

이숙현, “CIP제도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출판문화』 424(2001. 3)

현규섭, “국제표준도서번호(ISBN)제도의 기본방향 분석”, 『도서관』 294(‘88. 2)

\_\_\_\_\_, “도서출판과 서지정보의 유통과정을 결합하기 위하여”, 『출판문화』 272  
(‘88. 6)

### <보고서>

국립중앙도서관, 「사업계획서(안) : e-CIP 및 온라인저작물수집시스템 구축」,  
2001. 6

박윤규, 「유통서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실용화 방안」 1999. 6

출판유통현대화추진위원회, 「출판유통 현대화 사업 연차 시행 계획(안)」, 2001.

한국문헌번호운영심의회, 「ISBN Data Base 구축사업 실행계획(안)」, 국립중  
앙도서관, 1999. 12

## <학위논문>

- 강경중, 『한국출판유통의 <일괄서비스시스템>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신방대학원, 1997
- 강선영, 『한국출판산업의 정보화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1999
- 김미영, 『우리나라의 출판물 유통사례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1998
- 김미지, 『한국과 일본의 출판유통에 관한 비교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1999
- 김봉모, 『고객지향적 출판유통경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1997
- 도영운, 『한국출판유통의 현대화를 위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1998
- 맹준수, 『정보화사회에 따른 출판유통의 발전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1989
- 박성현, 『출판유통VAN의 구축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1995
- 성의현, 『출판산업의 유통구조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1998
- 윤형두, 『한국과 일본의 도서유통에 관한 비교연구』,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1983
- 이두영, 『출판유통정보시스템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1989
- 이상호, 『출판유통현대화를 위한 EDI구축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1994
- 이재원, 『출판물 유통을 위한 ISBN 정보시스템설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1998
- 임준현, 『한국 출판유통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 1994

## <외국자료>

國立國會圖書館, 『國立圖書館のしごと』, 日外アソシエーツ出版部, 1997  
尾下千秋, 『変わる出版流通と圖書館』, 日本エディタースクール出版部, 1998  
法政大學産業情報センター, 『POSとマーケティング戦略』, 有斐閣, 1993  
松平直壽, 『コードが変える出版流通』, 日外アソシエーツ出版部, 1995  
流通コードセンター, 『出版バコードの課題と展望』, 1996  
日本圖書コード管理センター, 『日本圖書コード書籍JANコード実施の手引き』, 1998  
出版年鑑編集部, 『出版年鑑 2000』, 出版ニュース社, 2000

The International ISBN Agency, *ISBN Review*, 1998

\_\_\_\_\_ , *ISBN User Manual*, 4th ed., 2001

\_\_\_\_\_ , *Publishers' International ISBN Directory*  
*2001/2002*, 2001

The International ISSN Centre, *ISSN Compact*(CD-Rom), 2000. Dec.

- Abstracts -

A study on the improvement for the use of ISBN/ISSN

Kim, Mi-Hae

Graduate School of Mass Communication

Chung-Ang University

This study analysed the basic problems in the practical use of ISBN/ISSN, and proposed some solutions. The study found that the causes of improper usage came from the structural side of the number itself. And it sought the methods to improve the use of ISBN/ISSN by the improvement of the management of the system, by the expansion of online service and by the construction of bibliographic DataBase.

The matters of concern in the study were those related to how the actual management of ISBN/ISSN is handled both in internationally and in Korea, and obstructions to the use of the systems.

The solutions for the improvement of use of ISBN/ISSN are as to;

- (1) The management of ISBN should be transferred to the nongovernmental institution.
- (2) A supplemental number and set number that took part in any major misuse should not be added.
- (3) The e-CIP should be developed in cooperation with ISBN.
- (4) Information on ISBN should be actively used by internet.
- (5) The integrative ISBN DataBase that uses the ISBN as a main key should be built.
- (6) The numbering system of ISSN should be examined, and, academic journal should be different with general journal in that system.
- (7) It needed a new government policy for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